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北中問題中心으로 四省聯合協議會
日中交涉의重大局面豫想코 經濟提携方針堅持

【東京電話同盟】外務省에서는二十三日 午後零時半부터 省內에서外務 陸軍 海軍 大藏四省聯合協議會를 開催하고 外務側桑島東亞局長以下 關係官이 出席하야 北中經濟開發問題를 中心으로 여러가지로 重要協議를遂하엿는데 日本政府는 中國民衆의 福利增進과 未開發資源의開發의 二大眼目及 南京交涉의成否如何에 不拘하고 北中政權과의間에 着着經濟提携를完成하려는方針을 堅持하고잇슴으로資金融通問題 材料供給問題 技術供與問題等具體的方策에 對하야協議를할것이라고 信憑되다 그리고 須磨南京總領事의 歸國報告를 기다려 日本側은 日中交涉을 中止할가말가의 最後의 重大局面에 逢着 되여잇는 此際 日本關係當局間에 着着獨自의 北中對策이 考究되고 잇는 것은 日中交涉의 成立如何에不拘하고 北中에잇서 旣定의提携工作을 强行하려하는 日本의强硬方針을 反映하는것이라하야注目되여잇다

須磨總領事 長崎經由上京

【長崎電話同盟】缺裂에 瀕하여 잇는 川越張群交涉의 日中兩國國交調整에 關한 詳細한 現地報告를 携行한 須磨南京總領事는 二十三日午後一時十五分 上海로부터 長崎에 入港한 日華汽船長崎丸으로 歸國하야 同二時四十五分 長崎驛發急行으로東京에 向하엿는데 船中에서左와 如히 말하엿다

今回 歸國한것은 有田外相에 對하야 中國現地의 事情을報告함이 唯一의目的인데 余가 政府의 訓令을 仰하야 離任할는지 엇잴는지는 外務省에 充分報告하야 結果를 待하지 안흐면 알수업다 南京政府에 誠意가 잇는지 업는지 川越張群兩氏交涉의經過 또는英米等列國의 日中交涉에對한 態度等 現地狀況에 關한것은政府에 報告하기까지는 何如를 말할수업다 다만中國側이 東洋和平의道는 日中兩國의 國交調整에 잇다는것을 認識하기始作한것은 얼마큼 눈에띄인다 離任豫定은 아직考慮치안흣나 報告를 꾸내는대로急遽赴任할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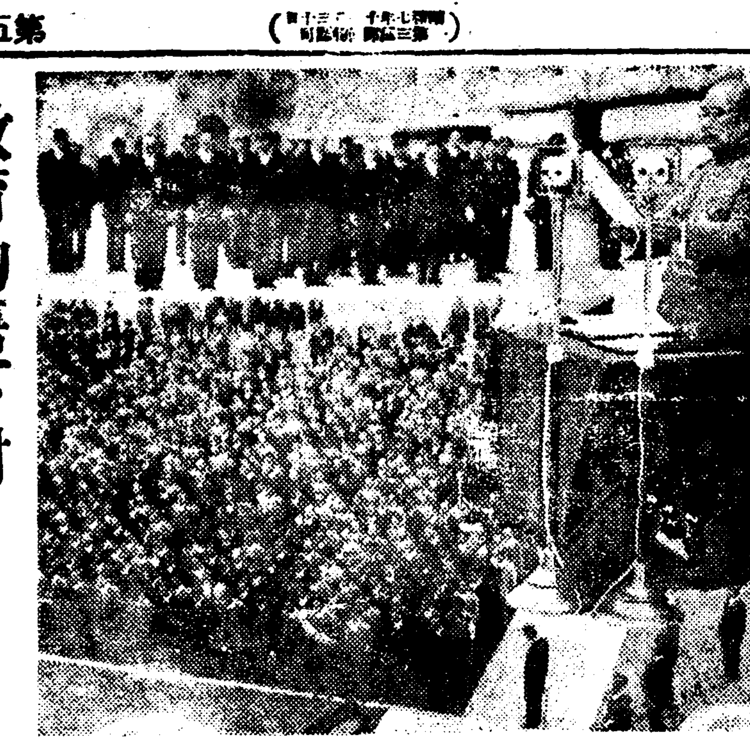
古川新圖書課長談

古川新任圖書課長은 二十四日正午에 總督府出入記者團과 會見하고左와如히 着任人事를하엿다

地方官吏로만 轉轉하다가 今般總督府에 入하게되야 中央의 事情은 잘몰으나 充分히努力하며 工夫하겟다 特히新聞이라는 文化方面事務를 擔當하게되는것은 기뿜이나 武斷討伐하도록 新聞을征伐은아니할터이니 安心하라 今後上司의 命令과 諸君의指導協力에依하야 힘껏하는데까지 工夫할터이다

御召艦神戶御入港

【神戶電話同盟】海軍特別大演習御統裁를 終了하옵신 聖上陛下께옵서는 江田島行幸及 觀艦式御親閱次로 御召艦比叡에乘御하옵시고 二十五日 神戶에 御入港하옵시엿다 去二十一日 橫須賀에서 御乘艦、神器를捧하옵시고 멀리南海洋上에 錦旗를 進發하사 御機微는하옵시나 御感氣御全快直後의 玉體를 倬倈하압게도 秋冷의 潮風 가운데 내여노우시압고 將士와함게 御不自由로우신艦內에서 御起居하옵시면서 親히演習을 御統監하옵시기 御四日 我國生產貿易의 中樞地阪神前海에서 展開될 觀艦式에 臨御하옵시사 皇國海軍의 威容을 閱하옵시기爲하와 御召艦은 演習參加諸艦보담 한거름압서 紀淡海峽을 御通過 神戶港에御入港하압실 御豫定이시다



教育勅語下附 二十五年 勅語奉讀式
總督府前廣場서擧行

敎育勅語는 朝鮮總督에게 下附되신지 今二十四日은 滿二十五年 總督府에서는 當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前廣場에 全職員參集 爲先 皇居를 遙拜하고 國歌를 合唱한다음 南總督은 勅語를奉讀하고 半島二千萬民衆에對한 南總督의 訓示를 發하야 最後에 同二十分式을閉하엿다 이實況은 DK로부터 全朝鮮에 中繼放送되엿다 그리고 各道府郡島及諸學校에서는 同時에 勅語奉讀式을 擧行하고 全朝鮮一齊히 敎育勅語를 基底로 새로운 自覺과 奮發을 喚起한바잇섯다

寫眞은 (上)南總督의 勅語奉讀光景과 (下)勅語奉讀式場

國策遂行機關設置와 外務、拓省의統合等
陸海兩大臣이 共同提案한行政機構改革 具體案의正文要旨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行政機構改革에 關하야二十三日 定例閣議에서 其取扱과 改革斷行의範圍를 決定하고 이와同時에過般陸海軍兩相으로부터 共同提案한 行政機構改革具體案의 正文을 印刷하야 一兩日中에 各閣僚에게 配布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改革具體案의 正文要旨는 左와 如하다

◇軍部提案=行政機構改革骨子

憲法條章의 範圍內에잇서左와如히改革함

一、中央制度

1、內閣에 國策遂行機關을 創設하고 右長官을 閣議에列케함을 得하게하고 情報委員會를 改組하야 이에統合함

2、外務省과 拓務省을 統合함

3、貿易行政을 掌理하는機關을 創設함

4、燃料、電氣行政을 掌理하는 機關을創設함

5、農林省、商工省의 行政事務를 統合함

6、鐵道、遞信、航空行政事務의擴充을圖하야 內務省土木局의一部를 右에統合함

7、鐵道省、遞信省의 行政事務를 統合함

8、文部省의 敎學刷新機關의機能을 擴充함

9、其他 各省에잇서서 行政事務의 重複을 整理함

二、右中央制度의 改正에伴하야地方制度를 改革함

三、世運의進展 議會制度의現狀에鑑하야 議會制度를 改革함

綜合統制機關의 軍部側組織內容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問題의 取扱에잇서 軍部當局은可及的 速히實現을 要望하고잇는데 國策綜合統制機關의 軍部側의 組織은 左와如하다

一、國策綜合統制機關의 名稱은參議院或은 國務院으로함

一、右機關의長官은 閣議에列席함을得함

一、參議院(國務院)은左의五局乃至六局으로써 組織함

가、總務局 나、勞務局 다、資源局 라、人事局 마、法制局 바、情報局(該局은獨立하야長官에直隸해도可함)

貴族院의批評

【東京電話同盟】政府의 行政機構及議會兩制度改革取扱에關한貴族院各派의 批評을 綜合하면左와如하다

一、政府에서決定한 中央地方을通한 全面的行政機構改革의具體的方針은 關係閣僚의 手腕에依據지안흐면 안될것이나 愼重考究하야 名實共히 大努力하기를바란다

一、議會制度의 根本的改革은國民多年의 要望인바 이것이必要하다는것은 더말할것도업다 그러나 이議院制度 調査會에잇서 政府의態度를 보면 單純한召集期의 引上問題인 關係의 官僚的希望을 聽從하야 調査會의 進行을 妨害하는等은 到底히 制度의 根本的大改革等은 實行할수업다 政府는 要컨대 그릇된 官僚的態度를 버리고 國家的見地에서 貴衆兩院議者等의 意見을 充分尊重하야 具體案을 立案할 것이다

貴族院을改組!
◇軍部側의議會制度改善目標

【東京電話同盟】議會制度改善에關하야 陸海軍部內에서는 일즉부터 實行을 要望하고잇서 廣田首相의 手許에 提出한 行政機構改革에 關한 軍部共同提案中에도 實行項目으로서記載된 것을 要望하고잇는데 軍部의 抱懷한 議會制度刷新改善目標는 如左하다

一、議會政治의淨化는 此際 가장緊要하며 貴族院의 改組에 關하야 貴族院의改組卽有爵議員의 減員 勅選議員의 定年制又는 年限制 多額議員의 廢止、止職能代表議員의 設置等이다

一、衆議院의 改組에 關하야는 이것도 만히 研究를要할것인데 例를擧하면 議員數의 減員 選擧法의 徹底的改正等이다

對西不干涉委員會 事實上으로決裂
蘇聯、行動의自由留保

【倫敦二十三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委員會는 決裂의 危機를孕胎하고 二十三日午後五時十五分 英國外務省로카르노堂에서 開會하고 葡萄牙代表를爲始하야 歐洲三十七個國代表出席裡에 重要討議를 開始하엿다 特히蘇聯代表마이스키大使를爲始하야 大使館員거이 全員이 出席하엿고開會前議場에는 벌서부터 暗澹한 殺氣가 低迷하고잇다 議長프리마드卿이 먼저開會를 宣言하고 獨逸代表비스맑公의 發言을求하야 獨逸代表가 準備하엿든 覺書를 소리놉기 朗讀하야 獨逸政府가 叛軍을 援助한다는 蘇聯政府의 非難을 徹底히 反駁하엿다 다음에 프리마드卿은蘇聯代表로부터 開會直前에 手交된 通牒을 朗讀하고 討論을開始한바 蘇聯代表마이스키大使와獨逸代表비스맑公과의 間에 白熱的論戰이 展開되여 結局 委員會는蘇聯政府의 協定違反三件 伊太利政府의 違反一件을 認定한後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分科委員會를 開催하기로決定하고 散會하엿다 蘇聯政府가 新通牒과行動의 自由를留保한結果委員會는 事實上決裂狀態에빠지고 歐洲政局에在한 左右兩翼의 對立은드듸여 尖銳化하게되는듯하다

葡萄牙、西政府와 國交斷絕을決定

【리스본二十四日午前二時發至急報同盟】葡萄牙政府는 二十三日 西班牙政府에 對하야 國交斷絕을 決定하는同時에目下 마드리드駐剳葡萄牙代理大使에게 任地撤退를命令하엿다

蘇聯의軍事干涉 獨逸政府가指摘

【倫敦二十三日發同盟】倫敦駐剳獨大使비스맑公은 二十一日不干涉委員會議長프리마스卿에 對하야 蘇聯政府의 軍事的干涉을指摘한文書를 提出하엿다 要旨는 다음과갓다

一、九月 日 蘇聯船一隻은 바르셀로나에서 武器彈藥을 陸揚하엿다

一、九月十五日 蘇聯製高射砲六十門機關銃多數를 마드리드에向하야 輸送하엿다

一、蘇聯飛行機三十七臺가 西班牙에 輸入되엿다

一、九月十五日아르칸테에서 브라데이올號(八五〇噸)로부터軍需品을 陸揚하엿다

一、十月十六日 蘇聯汽船一隻이 아르칸테로부터 多數의彈藥을 陸揚하엿다

一、蘇聯汽船코소몰號는 카르타헤나에서 戰車五十臺를 陸揚시켯다

獨代表가朗讀한 覺書의內容
蘇聯의西政府援助事實指摘

【倫敦二十三日發同盟】獨逸代表비스맑公이 不干涉委員會席上朗讀한 覺書의內容은 다음과갓다

第一部

一、獨逸政府가 不干涉協約을깨트리고 叛軍에 武器를 供給하엿다는 非難은 全然無根이다 如斯한 無根한 非難을 公正한 國際的 委員會席上에서 討議하는것은 놀낼만한일이다

一、西班牙政府가 鐵十字印의부튼飛行機의 寫眞을提示하고잇는데 그것은 八月九日 即協約成立前事故로 바다호스市에 不時着한 융커스第五十二號機의 寫眞에不過하다 同機는 爾來西班牙政府에 不法抑留되고잇다

一、八月末 獨逸飛行家 게르할트·피세르氏의 指揮하는 飛行機十二臺가 세빌리아市에到着하엿다는 非難은 甚치안흔 말이다 西班牙政府가 英國新聞에報道된 記事를 調査치안코그대로 報告하엿슴에 不過하다

一、西班牙政府는 세빌리아市에서貿易에從事하고잇는 獨逸人이多數居住하고잇다고한다 此等獨逸人은 일즉이飛行機를 賣買한일은업다

第二部

一、九、十兩月에亘하야蘇聯汽船이 歷次外國旗를 揭揚하야西班牙政府에 飛行機裝甲用自動車其他多數武器를 西班牙各港에陸揚하엿다

一、九月中旬變裝한 蘇聯飛行士三十名은바르셀로나港에到着하엿다

시九月二十五日蘇聯飛行機十三臺가 알리칸테港에上陸하고十月十六日貨車五十輛分의蘇聯製武器가 카르다헤나港에 陸揚되고 同時에 貨車의 運轉에當하는 蘇聯技師九十四名이 上陸하엿다고한다

以上은 十月十三日바르셀로나放送局에 蘇聯援助에 對하야感謝를 行한것 및 그前日 莫斯科放送局이 蘇聯人民은 西班牙人民戰線을 援助할目的을 故意한것을 想到하면 事實임에相違가업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二十三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首相以下 各閣僚(永野海相欠席)出席行政機構改革問題에關하야 廣田首相으로부터 別項과가티 取扱方針及 審議方法을諮하야 諒解를 어든後 다시問題에 關하야 說明이잇섯다 政府에서 聲明할것을 協議하고最後로 廣田首相으로부터 議會十一月召集案에 關하야政府로서는 議院制度 調査會에 對하야 十一月召集案에 對한所信은 大體左와 如한方法으로 明白히하고자한다

即該委員會에서의意見은 政府의處置에不拘하고 自由로檢討하야決定하기를바란다 그에適應하기爲하야 政府는必要한處置를取하야에쏙지안는다는意味를 適當한機會에聲明할意로하고 諒解를求하야 同十一時四十分散會하엿다

古川新圖書課長

廿四日午前七時廿五分京城驛着

古川新警務局圖書課長은 二十四日午前七時二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家族同伴 官民多數出迎裡에 着任하야 곳朝鮮神宮에 參拜한後 登廳하야 勅語奉讀式에 參列하고 即時로總督總監警務局長에게着任人事를한後 柳生前圖書課長으로부터 事務引繼를밧고當夜後任인 中野平北警察部長에事務引繼를하게되엿다

本社參觀(廿四日)

▲吉邑支局主催 金剛山觀光團十五人本社參觀

▲仁武學院生徒二十五人金瀧相氏引率下本社見學

人事·集會

▲吉岡三浦氏(忠北內務部長)新任人事次來社

▲安田宗次氏(忠北警察部長)同上

▲吉良成南警察部長 二十五日午前八時京城驛發赴任

▲韓鎭燮氏(黃海道保安課長)新任人事次來社

▲羽根兵三氏(京城西大門署長)新任人事次來社

▲李德榮氏(梨花女高敎務主任)同校運動會終了人事次來社

話題社說
行政機構改革問題

◇ 軍部에서 庶政一新의 前提로서 반다시 斷行하여야된다고 主張하고잇는 行政機構改革問題는 陸海兩相이 去月二十一日 그要望條項을提示한以來 그것을 [illegible] 附議할것인가 또는臨時審議機關을 設置하야 立案케할것인가 여러가지로 그取扱方法에 對하야 政府는苦慮中이엿는데 昨二十三日閣議에서는 드듸여 各閣僚가分擔하야 中央制度에 對하야는 總理、陸相、海相、藏相、文相의四相이 研究調査키로되고 地方制度와議會制度改革은 法相、內相、農相、商相、拓相의 五相이 研究調査키로 決定되야 그取扱方法에는 爲先軍部大臣의同意를어덧다 그리고 四相會議、五相會議의結果가 綜合되야 行政機構改革案이 具體的으로 立案되기까지에는 [illegible] 先明年度豫算編成第一主義로나 가기루政府와軍部間에 諒解가成立된모양임으로 무엇보다도 行革問題를 中心으로한 政變說은消散되셈이다。

◇ 軍部가 行政機構改革을 主張하는나하는點을 簡單히말하면 即現在의 內閣官制 및 政治經濟機構로서는 庶政一新을斷行할수가 업슴으로 行政機構를 綜合國策의 統一的企劃 [illegible]

[illegible]

(洪鍾燦)

人國錄

◇ 寒暖計에 날서 初冬、今年은 겨울이 일쯕 오려나。

◇ 장작、石炭값은 어떠며、무배추값은 어떤지?

◇ 物價는오르고 收入은 줄지안는 都市 俸給生活者、겨울은 걱정과 愁心의 겨울。

◇ 不二農場 小作人等 總督府에 陳情한 事情을 陳情。

◇ 平北當局의 處置로는 不滿인 때문? 피、땀으로 맨든 農土 그들의 뜻대로 돌어줄이 如何。

◇ 西班牙革命軍이 首都를 陷落하면 革命政府를 承認하자고 獨伊間 意見一致。

◇ 獨伊는 積極的인데 英佛은 어떠려노? 中正主義는 그럴자를 갓추는 故上。

內外國理髮器具 化粧品 鏡 都賣

增資金十萬圓으로營業大擴張!!

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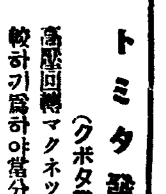
販賣元 東亞理髮器具株式會社

電話光二一二三番 振替京城一九八八五番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速修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解釋되엿고發音이正確(內容見本卽送要二錢切手)

京城府樂園町五五 英語通信硏究會



養毛 美髮의 第一이다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小兒內科 血液檢査每日施行 趙漢英醫院 電光二一九八七

副業또는本業에 千代田商店 大阪市西區本田通 電話西七二九八番

朝報案內

讓渡 化粧品、粉末石鹼製造業原料、容器包裝傳授、機具最新製造技術 朝鮮化粧品硏究所

本人

恩給 最大長期低利立替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男女事務員募集

一、男事務員 年齡二十五歲以上三十五歲未滿 中等又는商業學校程度卒業者 府內居住者

一、女事務員

京城瑞麟町 株式會社 鍾路券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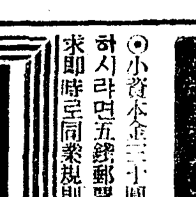
金金有望한 軍手의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特別割引으로써 各面一名限하야新規開業者에對하야 資金의補助的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無砂精米機(都賣價) 特號機 金二十八圓 一號機 金十六圓五十錢 二號機 金十五圓五十錢

特約店募集·型錄進呈

中央商工社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 電話本局七四三五五·一一六二番

(最完全한トミタ發動機) トミタ發動機 農林省比較審査最高優位入選機

方仁根作·長篇小說 放浪의歌人

◎藝術的洋裝美本 ◎定價金二圓

◎滿天下의人氣! 此小說에集中!!

▲朝鮮初有「모델」小說!

▲某音樂先生과女學生의情史!

▲戀愛의葛藤과家庭의悲劇!

●書籍行商大募集

永昌書館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四番地 振替京城六三三一番 電話③光一五三一番

クスリで面白い金儲け 思ふ薬が自由に出せ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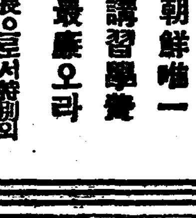
日本通信製藥士學校 東京市芝區新橋六の四八

新職業 電氣醫療師養成

特別臨時講習

時代的電氣醫療學全科

◎責任傳授



朝鮮唯一 講習學費 最廉오라

內容規定書無代呈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水玉產婦人科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醫學士 李麟杰

廿八個線三千餘粁 鐵道空前의大計畫

京仁複線, 電化計畫도樹立

産業調査會에서 大綱決定

조선산업이 약진하는데에 큰 원동력이되는 조선철도망(鐵道網) 확충에 대하야 수일전부터 개최된 조선산업경제조사회교통부문에서 신중히 검토되엿는데 석탄경약 전력소화(電力消化)등에 편리한 철도 전화계획(電化計畫)은 다음과 가티결정되엿다

그리하야 신선로 건설계획은 이십팔선에 삼천사백구십칠키로로 이미 조사한것이 일천 구백확삼십사키로 아직조사안된것이 일천오백삼십키로에 달하야 이미건설된 사천구백키로 과정계획으로 건설되지안흔 선로일천칠백키로를 합하면 총연장이일만키로나되는 이계획을 토대로 하야 이뒤로 철도건설은 착착 구체적으로 되어가게되는셈이다

▲新線計畫

新義州—中江津	四一〇(粁)
中江津—惠山鎭	一九二
水豊—定州	一一六
大舘洞—价川	一〇六
厚州古邑—渭川	二〇一
江界及前記線의連絡	六七
惠山鎭—端川	一八一·五
新倉—下碣	二〇一·五
下碣—甲山	一〇二
茂山—新鍋林	八七
穩城—羅津	一三七
鎭南浦—灌井里	一七三
勝湖里—鐵原	一七三
南川—順干	一四七
外金剛—末輝里	一三四
金化—原州	一五五
原州—長湖院	五〇
春川—杆城	一二五
忠州—江陵	一一八
佳水院—黃地里	五三
榮州—道溪	一二二
汶山—議政府	二八
安東—盈德	七五
金泉—三千浦	一八八
功培—南原	五三
大邱—居昌	八六
林江—昌原	九六
泗川—統營	四九
計二十八線	三,四九七

▲電化計畫線

京仁線(複線)	四〇(粁)
京元線福溪高山間(複線)	五四
咸鏡線吉州、明川間(單線)	三一
惠山線(單線)	一四一
咸北線(單線)	六〇

凱旋途中에이汚點 船中에서傷害騷動

하키選手가泥醉하야싸움빌미

醜聞續出의올림픽陣

【東京電話同盟】올림픽파견선수들이 개선한지 약이순만에 삼도(森島)일등서기관이 던진대표군의 무통제무질서의 폭란경고는 이십삼일평생(平生)문상에보고되엿는데 또대표군중에 도려 회책에도 불구하고 백일하에폭로되엿다 지난상일 등경에 개선한 본부여원 녀자륙상녀자수 오는배속에서 상해(傷害)사건까지이르켜서 신성한 정도(征途)에 씻을수업는 오점을 남긴사건이 음폐하려는 대표여원들의 회책에도 불구하고 백일하에폭로되엿다 상 수구(水球)와하키권투 체조 롱구 마술 뽀트대이십명의 올림픽본대를 태운북도환(鹿島丸)이 일희상해(上海)를 출범한밤에 여러날동안 신세를 진그배 삼등선실뽀이등위로감사회를 선수유지주최로 아래갑판(甲板)홀에서 열엇슬때에 오후열한시쯤 지나서 술이 상당히취하엿슬때 에하키선수인상대생(商大生)무지치(武知治)(二五)군이 술에잔뜩취하야 함부로날뛰임으로 여럿이그를 만류하려 하엿스나 역시날뛰으로그전부터그의 스포츠맨답지안흔 태도를 미워하는대표선수가그를때렷슴으로 분이난그는 선실로들어가서 서양면도를끄내 가지고나와서연회장으로 달려옴으로일동은 겨우휴리를 빼아섯든바 또어데서다른면도를 가지고나와섯슴으로 다른선수들이 이를빼스려고 업조려 뒤치락하든중에 무지군이자긔가 자긔의바른편귀밋을 찔려 피투성이가되여 너머젓슴으로 일동은놀래여 의무실(醫務室)에수용하고 따러갓든의사 청중철랑(靑中哲郎) 박사가 수술까지한다음에 이추태를 비밀에부치고 개선한후그가 동경에도라와서도 머리에붕대한채로 환영회에도 출석하지 안하엿다 이의가튼 엄격한 의규률을 전연 지탱하지안흔 주리를 연출한여원의 책임을 추궁하여하지만 본부여원이 군을 해산식히기전에 처치안흔것은여간 유감스러운 일이아니라고보고잇다 서는 불원간어떤처분을 내리고 저리사회를열고 흑케마네자석천 주작(石川周作)씨의 보고를두할터이다 이에대하야 석천마네자 는다음과가티 말한다

란루가잇슨것은 사실로서유감된일이다 면도로 버혀진것인지 마진것인지 명료치안흠으로 어떠한 처치를 할지협회에 정식으로보고한 다음에 처단할것으로 생각한다 당사자가 학생이니만치 그의장래를생각하야적당히 처단하려고 생각하고잇다운운

神社參拜에對한 富永學務局長談話發表

이십사일부영(富永)학무국장은 금년추기예제(秋季例祭)에 잇서서 학교생도들의 신사참배에대하야 다음과가튼 담화를발표하엿다

秋季例祭에 學校生徒의 神社參拜에就하야

神社參拜는 我國民精神의中樞가되는것으로 當局에서는 國民의敎養訓練하는學校에서 神社參拜를 國民敎育上必須한 實踐行事로하야잇는것은 周知하는일이다 本年八月神社에關한 勅令及關係府令等發布를보고 同時에京城神社及龍頭山神社國幣社列格을보게되엿다 又道府邑面으로부터 神饌幣帛料를 供進할바든神社를 指定하는等 朝鮮에서 神社制度의確立을 보게된것은 畢竟一視同仁 聖德一體의 大御心을奉體事하야 實現하신明(?)으로부터 나오는것을 拜察되는다 眞實로感激 不堪하는바이다 따라서 當局으로서는 이를 一層擴充하고 一層國民一般에 神社崇敬의 觀念을 明徵하야 同時에 特히 學校敎育에 잇서서 더욱 生徒兒童의 神社參拜를 勵行케하야 我國民精神의 涵養上 遺憾업기를 期키爲하야 神社의 例祭에는 各學校 職員生徒兒童의 參拜하기를 通牒한바 當局及 其他方法으로서 當局의方針을 周知理解케함에 努力함이다 그리하야 此番今秋의 例祭에 就하야 보아도 昨年에 神社不參拜問題를 惹起한 平壤에서도 各學校 敎育의 精神을理解하고 參行을 보앗고 共히 神社參拜의 勵行을 보앗고 其他各地에서도 多少經緯가잇슨 곳도잇섯스나 此等境遇에도 父兄側으로부터 率先參拜의 氣運을 釀成하야 全朝鮮에 亘하야 學校職員及 生徒兒童의 參拜가極히 圓滿하게 實施되는것은 當然하다 하드라도 我國民精神의 作興上 欣快에 不堪하는바이다

容疑者"松浦"가 犯行事實을自白

(龍山署刑事隊勇躍證據物搜査中)

元町强盜事件一段落

지난번 원정(元町)이정목일번지 굴송차(堀松次)의 밤배가가 드러가서 강도범인은 그후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 체포에 활동한이래 경향으로부터 수십명의 용의자를 검거햇다가 돈 대한 모다 자백을안흘 뿐만한 물적증거 비상한곤경에빠 저 한일밤에 검속하는 원정(元町)이정목일번지에 송포(松浦)(三)라는 일본내지인이 이십사일 오전에 이르려 마침내 자긔가 그사건의진범인것을 자백하기에 이르럿다한다 이번인의 자백에 의하면당자가 범행을 저질르든날밤에 굴송차의집을버서나가지고 런병정(練兵町)으로부터 원정쪽으로통하는 길에처잇는 옥천(玉川)을 끼고 다려나다가 빼아슨돈오십원을 지갑에 너흔채 그개울에 던저바리고 말엇다하여 그서형사대는 할크를피우고이십사일오전열한시반부터 그개천물을 막고 찻는중이다 지갑이차저지는 때는 적확한 증거품과함께 원정강도사건도 확창을짓게될모양이다

敎育勅語捧讀式擧行

京城府廳에서

경성부에서는 이십사일 오전아홉시반에 청원일동이 모혀서 조선교육지어봉독식(捧讀式)을거행하엿다

金衡翼氏 醫博論文通過

황해도 해주읍 남본정 (海州邑南本町)에서 현재개업을 하고잇서 취조하는경관도 손쉬웁다고하고잇다

(사진은 김형익씨)

"犯罪日記帳"著者 惡運다해警察에

大學卒業하고身勢亡친標本

이십사일 시내동대문서에는 재령(載寧)출생의 김병일(金炳日)(三〇)이라는 절도범을 체포하여와서 취조중인데 그는일즉이동경어느대학까지 졸업한 청년인데그동안타락하야 작년겨울부터 시내각백화점을 전문으로 절도를하여오든것인데 수만흔 범행을 일일히그록한 범죄일긔장을가지고잇는일이 경찰에서는 이것이에대하야 도록한다 고잇는대외사김병익(金秉翼)(?)씨는일마전에경성제국대학교수회에서 「아드레날린」及「비간틀」에依한實驗的動脈化症의形態學에對하여」라는 주론문 한편외 참고론문다섯편을 제출하엿든바 지난이십일에 그교수회를 통과한동시 명예의 의학박사(醫博)학위를밧게되엿다한다

자해의원 초산(楚山)도립의원해주(海州)도립의원 외과(外科)과장등으로 근무하다가 작년겨울부터 해주에서 개업한이래 해주토기계(刀圭界)에서 신망이상당히 두텁든터이라한다

씨는 일즉이 경성의전(醫專)을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한후 다시 동경제대(東京帝大)를 거처가지고 대정십일년부터 이날까지 만십삼년동안에 평양(平壤)

電車속에서 大金盜難

이십사일 오후두시이십분경에 철원군신서면내산리(新西面內山里) 서태안(石台晏)(?)씨가 시내 청량정(淸凉町)에서 동대문까지오는 전차속에서 현금칠백사십원을 도난당하엿는데방금 동대문서에서는범인을탐사중이다

四遊廓擔當의 醫師會合協議

경성부위생과에서는 이십사일 오전아홉시부터 경기도청에서인천(仁川)개성(開城)수원(水原)경성네곳의유곽(遊廓)담당의사가회합하야 천안(天岸)의생과장의통재아래 화류병방멸 대책과 검사규준통일에 대한 사항을협의하엿다는데 창기들에대한 검사를 더 엄밀히하고 재료틀서로교환하야 화류병의 만연을 방지하기로 되엿다한다

咸南一帶工事場에 勞働者需要激增

咸州郡內에만五千名이大不足

【咸興】야구재벌(野口財閥)의진출로서 흥남조질공장(興南朝窒)을 비롯하야 각방계공장등설치로아연조선재벌의 공장지대로화한 함남함주군(咸州郡)지방은 가지에서모여온 무수한로동자로인하야 와연로동자왕국인듯한 늣김이업지안흔데 금년에는특히 본궁(本宮)에 「카—바이트」조달(曹達)공장등 몃개의거대한공장이새로 이럿낫스며 또하기천면(下岐川面)일대에 이러나는 수전회사발전소공사등으로인하야 수요(需要)로동자의수는전보다격증하야 통이혀 근오천여명의로동자가 부족되야 곤난을밧고잇는 괴현상을 나타내고잇다

구월말현재 함주군(咸州郡)내의소요로동자(所要)는 이만오천팔백오십사명이데 현재취여(就役)하고잇는 로동자는 일본내지인이 칠천이십오명 조선인이일만삼천사백이십오명 중국인이륙백십오명 합이만일천팔십오명으로 결국사천칠백칠십팔명의 부족을보이고잇다

"靑春"君卒死

前回成錦문직이

시내 회산보통학교강당(華山普通學校)에서 령천주택지 차지인대회(借地人大會)를열엇다고한다

이십사일 오전일곱시경에 시내동대문서안에서 어떤사나히가 죽어잇는것을 경관이발견하고 조사한결과 그는시내 청량정(淸凉町) 일백칠십오번지 리창식(李昌植)(?)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가젊은시절에는 시내에서 문직이로 청춘(靑春)이라는 별명을갓던 씩씩한 사나희엿던것이 그동안 고난의풍설을 지날뿐이라 만성신장염까지 발하야드디여전과의가치 추운거리에서 한많은일생을 맞치고 쓸쓸히죽어간것이라고한다

第二回

全朝鮮音樂競演大會

今日午後七時半 (入場料 五十錢均一)

於 本社大講堂 朝鮮日報社

罪는지어노코 埶나서自首

부내 서소문정(西小門町)칠십일번지 육산(栗山)변호사무소부터 경관인 오현사(吳刑事)삼전(森田)최북대(崔北大)최룡대(崔龍大)등의 중인신청이 잇섯스며 차회공판은 오는이십사일이라한다

靈泉住宅地 借地人大會

오랫동안 말성이되여 오던령천주택지(靈泉住宅地) 문제를토의하기위하야 그차지인(借地人)측서는 이십오일 오후두시부터

警察調書를 被告全部가否認

慶州讀書會事件續行公判 大邱覆審에서開廷

【大邱】경주독서회(慶州讀書會)사건의피고 리칠성(李七星)외여덟명에대한 속행공판은 이십일 오전열한시부터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제삼호법정에서 송본(松本)재판장주심 류원(柳原)검사의 관여미테 개정하고오후여섯시이십분에 폐정하엿는데 피고아홉명은 사실전부를 부인하는동시에 취조경관의고문으로 말미아마 허위자백한것이라고진술하엿다

이번지 미곡상송포제생(松浦濟生)의집에 사무원으로잇는 소원모(小原某)(三)는 소화구년오월부터 최근까지 장부를위조하야가며 다액의 금품을 횡령하야 주색에랑비하고 량심의가책에 견듸다못하야 이십삼일오후에 드듸어 서대문서에 자수하고말엇다 그런데 이십사일까지 조사한바에 의하면 횡령액이 이천이백필십원이나 되는데 아즉도조사안된것만 약삼천원은되리라고한다

工場人夫監督이 女工을亂打致傷

【淸津】별다른 리유도업시 공장인부감독 인부감독(人夫監督)이라는 명목으로 잔악한 녀공(女工)을함부로 구타(毆打)하고 발로짓밟아 상처를내이고 말이려하든녀공수명 에게까지 폭행을가하야 그로인하야 즉 빽내다가 고소(告訴)까지당한사건—청진부어항(漁港)에서 번영을 자랑하고잇는 림겸파힘공장(林兼罐詰工場)조리장(調理場)에 인부감독으로잇는 중산모(中山某)(假名)(三)는 지난 십오일오전열시쯤 동공장녀공으로 시내포항동(浦港洞)에 살고잇는 김정숙(金貞淑)(二)을 공장안에서 불러노코 자긔의 명령에 어긔엿다는 리유로 무수히 란타(亂打)한외

商業學校期成會 積極活動開始

【群山】읍내부민의 주목리에여려가지로 론의(論議)의 초점이되여잇는 군산상업학교설치긔성회(商業學校設置期成會)는 그사이에 여러가지의사정으로 소극적활동에 지나지못하야왓든바근긔성회총회(期成會總會)를 개최한후 압흐로는 적극적활동을 개시하기로하얏다는바일반부민들은압흐로의활동을주목중이라한다

天氣予報

概況 七五六미리의低氣壓은北滿을 東行中이며 七七〇미리의高氣壓은 南朝鮮方面에버티잇다 滿洲는개이고 朝鮮은一般으로 흐리며 西朝鮮에는雷雨가잇다 南朝鮮및日本內地는 日氣가조코 琉球諸島는흐리며 北東風이 조금세차고棒太地方은흐린다

豫報 京城地方今夜는흐리어 小雨模樣이며 明日은一般으로 흐린다 京畿全鮮도갓다

昨日最高	一七度九
今朝最低	零度八
今日正午	一六度一

◇新築落成 無料診察 校洞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獨房入院室完備 電光 一七五二 ヒナコイ

綜合競技大會 柔道戰開幕

劈頭에中東壓的勝利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鮮綜合競技大會 庭球戰은 二十四日午後一時十分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열린바 中學部第一回戰에 徽文이 靑學을 스트레—트로이겻다

朝鮮綜合競技柔道大會는 二十四日 午後一時부터 京城中央靑年會室內運動室에서 中學部及一般選手百三名이 參加한 中等校部及一般選手百三名의入場式이 잇서 前年度優勝校인 中東學校로부터 優勝盃의返還이 잇섯고 大會委員長朴勝彬氏의開會辭와 參加選手一同을代表하야 中央靑年會柔道部李元榮君의 宣誓文朗讀이잇슨後 本部委員長 張權氏로부터 審判에關한 簡約한 注意說明으로서 式을마치고 競技는 中等校部第一回戰의 中東對徽文戰으로부터 열리엇다

中等校部(第一回戰) ▼審判 石鎭慶

中東(勝)3…0徽文

△金光浩……李東壤△
△李相敦……洪性五△
〇林錫鎬……金永烈×
〇韓興律……金斗鉉×
〇鄭錫敬……具然相×

陸上競技大會

專門校體育聯盟

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主催의第十一回陸上競技大會는 明二十五日午前九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케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今年度高等工業을 비롯하야 聯盟加入校의 京城醫專 京城高商 京城法專 水原高農 京城齒專等의六個校가參加한 가운데盛大히擧行하리라고한다

綜合競技庭球

徽文快勝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鮮綜合競技大會 庭球戰은

中等部第一回戰

【徽文】勝 【靑學】

(裵裕孝 金漢興) 4…0 (李熙三 金元鎬)

(任勝宰 金鍾培) 4…0 (閔暎彬 高斗圭)

(申東晟 金鍾遠) 4…1 (李洪來 閔西基)

文相을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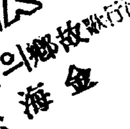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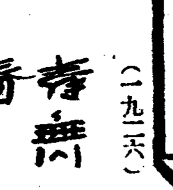
問題의森島氏

【東京電話同盟】올림픽派遣軍의 紛紅問題를 提出하야 俄然問題를 惹起케한 前獨逸大使館書記官森島守人氏는二十三日午後五時에 永田町의 文相官邸에 平生文相을 訪問하고 約二十分에 亘하야 伯林올림픽 派遣團의選擧된 態度에對하야 所感을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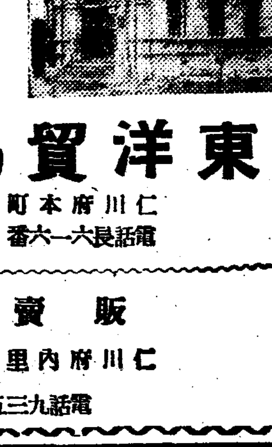
今回와가튼 事態는 實로 부그러운일이다 萬若이와가튼狀態로 東京올림픽이 開催된다면 寒心한事態를 惹起할것은 틀림업다 充分히自戒하야 世界에 對하야 부그러움이 업는 統制로서 東京大會를擧行하고십다

라고말함에對하야 平生文相은이에對하야여러가지로謝意를 말한後 同氏와의 會見後 官邸에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森島氏는 日獨交換敎授學生의 銓考에際하야서는 日獨雙方의 政府에서 充分한 聯絡을 取하도록 進言하엿스며 다시올림픽問題에 對하야서도 조흔 注意를 말하야 주엇다 나는 昨日 體協의 平沼、大島兩氏를만나 會長을 速히決定하야 上下一致로 鞏乎한 統制下에 一律的으로 오는東京大會를明朗한것으로 하지한으면 안된다고 極力으로 力說하야두엇다 體協內部가 종전의가 잇다는말도 잇는데 萬若 自力으로 서갈수업는 경우라면補助金은 支出치안을 作定이다

天一靈神丸
가을! 가을이왓습니다
慢性胃腸病에는飮食을注意하십시요 食後에消化良藥「天一靈神丸」을 服用하야주십시요
不意에생기는吐瀉病에는 神效할뿐아니라 恒時服用하시면 모든病을 豫防하실수잇습니다
效能 ▲食滯 ▲吐瀉霍亂 ▲暑滯 ▲消化不良 ▲酒滯 ▲胸痛 ▲氣逆上 ▲頭痛 ▲腹痛 ▲神經衰弱(?)
藥價 一十錢 二十錢 五〇錢 一圓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鐘路知町 製藥本舖 天一藥房


營業科目 米糠肥料砂糖麥粉類 海産物雜貨穀類
代表者 島崎千里 支配人 荻野四郞
本店 東洋貿易商會 仁川府本町二丁目 電話長八六一番 一八一番
販賣部 仁川府內里二〇五 電話三九五番

院長 醫學博士 李丙勳
副院長 京城醫學士 河野武
外科 一般 レントゲン科 植村外科病院
入院隨意 京城府永樂町二丁目八五 電話 病院用 本②〇二七〇番 自宅用 本①一七九二番

◇和食 洋食 京城第一味의最高峰
▲淸新한座席과輕便淸潔한宴會場의設備도잇습니다
◇鰻蒲燒、天婦羅、おすし
◇平南大同郡畜産肥育 平壤牛肉指定『すき燒』
◇뽀이들도多年經驗잇는者로全部交替식혓습니다
◇서—비스도充分히合意할것입니다
◇家族同伴으로宴會에꼭來臨하시기를바랍니다 配達도합니다
京城府旭町 味の店 食通 ほあくらん 電話本局(2)八〇〇番

愈、〆切迫る
今直ぐ御應募を!
ライオン齒磨
라이온
アベック・サービス
아벡 써ー비스
大賞品두가지가同時에當籤되는기쁨
應募하시는분全部에
粗景呈上
다시抽籤한後에
이런大賞品贈呈
A賞 壹千名
(イ) ポータブル蓄音器と婦人持洋傘(晴雨兼用)
(ロ) 寫眞機とハンド・バツク
(ハ) 指輪(寶石入)とクローム側腕時計
(ニ) 電氣機關車とお人形
(ホ) 美術置時計と姫鏡臺
(以上各二百名宛)
B賞 貳千名
萬年筆とシヤープ・ペンシル
剃刀セット
(當方選定)
C賞 五千名
アルバムと紙切ナイフ
D賞 壹萬名
ライオン徳用石鹸とタオル
能書二枚와外函二個를
一組로하야應募하시요
ライオン煉齒磨(家庭用 大形・中形)뿐이나
ライオン齒刷子(一號、二號 三號)或은
齒磨・齒舍을合하여서든지能書二枚와
外函二個를一組로하야外函에
(一) 希望하시는A賞하나
(二) 住所와氏名
(三) 朝鮮日報名
을外函에써너으시오
外函의兩耳는반듯이찌저버리시오
潤製는帶封二枚로能書一枚와外函二個로代用
潤製뿐이면帶封四枚를一組로하야帶封은藥名만한조히에쓰지오
一組마다封筒에너허서十五瓦마다參錢切手를貼付하야左記로送付
하시요(買入하신販賣店에서도받습니다)
東京市本所區うまや橋際
또는 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
ライオン齒磨本舗アベック・サービス係
締切 昭和十一年十月卅一日
抽籤方法 A는希望賞品別로抽籤B・C・D는
A에當籤이빠진분부터順次抽籤當籤
當籤發表 昭和十一年十一月下旬
하신一千名은新聞에發表
其他는賞品發送으로써代身함
注意 規定外는無效
眞實은빛난다
TRADE MARK
科學이立證한
ライオン齒磨의
世界的優秀!
160—11.10

—ㅇㅇㅇ— 가을과 포도 —ㅇㅇㅇ—

家庭

잘먹어야 건강하다 구미를 도두는법

가을에도 식욕이 주는수잇다

◇……언제나 섭생이 필요

가을이라고 누구나 식욕이 왕성해 지느냐 하면 결코 그러치 못 합니다. 그중에도 그 몸을 결핵(結核)에 걸리어 잇는 사람은 녀름이고 가을이고 도모지 식욕이 일지안어 고생하는 수가만습니다. 그러면 어떠케 해야 식욕이 일어 나게 됩니까 별 달리 조흔 방법은 업겟습니까?

먼저 음식물을 잘 씹어야 합니다. 본래 위가 비어야 식욕이 일어 나는까닭으로 음식물을 만히 씹어서 소화(消化)를 도읍는것이 조흡니다. 음식물을 자꾸 씹으면 그것이 잘게 썰어 지는동시 침을 만히 발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物理學的)으로 또 화학적(化學的)으로 소화(消化)를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사의 회수도 잘마처야 합니다. 보통 건강한 분은 먹은지 세시간 반에서 네시간까지 위가 비이고위스병환자는 오륙시간이나걸리는 까닭으로 그계질을 생각하야 회수수를정하는 것이 조흡니다. 보통사람 가트면 오전 여덜시에아침, 열두시쯤 점심, 오후세시반에 차 한잔, 그로부터 두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방울식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조치 안치오만은 병자에게는 절대로 해롭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또 그다음으로 대변도 주의하여야 할것이니 변비가 잇는 사람은 식욕이 일어나지 안습니다. 변비증이잇는 사람은 매일아침 일어나는길로 맹수를 한홉식 마시거나 한 우유와 실과를 자시는것이 조흡니다. 그뿐아니라 보통끼니때라도 음식물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로한번쯤 우유와 팡을먹는 것도 조코 정백미대신 배아미(胚芽米)를 먹는것도 조코 야채를 좀 만히자시는것도 조흡니다.

그리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식물로는 첫재 생선 고기조개등속의 단백질엑기스를 포함한 습(汁)가 잇습니다. 거긔다가 향긔로운 야채를 썰어 넣는 것이 더 조흡니다.

그다음으로는 식염(食鹽)이 위액(胃液)의 분비를 촉진하야 식욕을 돕습니다. 떡구나 아침에는 위액이 불충분하니까 식염을 조금씩 자시어 두는것이 조흡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신 것, 매운것,쓴것입니다.그러키때문에 초, 고초 호초 마늘 등속이 소화를 돕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술도 적당히만 먹는다면 식욕을좌우하는데 잇서 아조 비상한 효과를 내게됩니다 술과 함께 아페라든지 일지라든지 베초의 종류라든지 모든다식욕을 자극하는 효과를 내고 잇습니다. 단지 결핵환자에게는 술이 매고요 위스병환자에게는 고초종속이 나쁘니까 그 것을 알아로 먹지못 할것입니다

編物講習會

경성녀자기독청년회주최 본사학예부후원인 제오회편물강습회는 기보한바와 가리 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 주최측인 녀자청년회관에서 성황으로 개강이되엇습니다.

우리차지

〃양과젓〃

양은 매일 젓을 한통식 내엿슴니다。주인은 손님을 청하려고 열흘동안 젓을 짜지안헛지요。그러면 열흘후에는 젓이 열통이 될줄 아럿드니 원걸요。열흘이 되고 보니 젓이 말라서한통도 나지 못하엿슴니다。

(공덕시첨 남기훈)

애기들의 니닥기 언제부터 할까

만병은입으로부터든다

언제나 니를 정케하자

어린이를 가진가정에서 다틀데는 어지간히들 조심들하고관심을 가집니다만은 어린이의 니(齒)에 대하야는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하지안는 것갓습니다 실상은 만병이입으로부터 드러가고 온갖병의 근원이 소화기에서 영향되는 것을살펴볼때 사람에게는 니처럼중한기관도 드물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남을 보고 니가낫나 안낫나하고 손구락으로 만저보고 질거워하는대신에 이쁘게자라나는 니스발을 어떠케하면 잘간수할수잇는가를생각해야만 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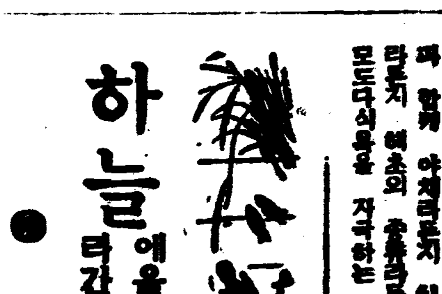
어린이의 니스발은 어느때부터 닥글것인가

보통학교에 입학이나 하게되거든 닥기시작하지! 하고 천연스럽게 내여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생각한일입니다

젓니가나거든 꼿니스발흘다고 씨처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젓니는 아즉니가 가려서지 안흔때임으로 아모리케나 두엇다가 니를골려세운뒤에다 거주라라고 생각하는것이 보통인데 젓니는 어느때든지오튼니와갈려질것은 더말할것도 업스나 니를닥는다는것은 다만 니스발을 희게하고 아름다웁게하는데 꼿치는것이아니라 입안을 청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가젓슴으로 젓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깨끗하게씨처주는것은 입안위생으로보이 업지못할일입니다

어린아이는 제 혼자 제손으로는 니를닥지못하는것이롤룸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되시는분이 솔주의하야 부드러운가루것으로 니를닥거주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니ㅅ발사이에 무더잇는 차마분(齒磨粉)가튼 것은 몰로 잘씨처주도록하며 이것이 불편한점이잇스면 소금을 가늘게 가루로만드러두고 이것으로닥거주는것은 더욱조흡니다 소금물은 목구녕으로넘어가더라도 위생에 해로운것은안입니다 이리하야 아이들이제손으로도 능히 니를닥고 양치를 할만하게되거든 비로소 치솔을 준비해주는것이옷슴니다 이리하야어릴때부터 조흔 습관을드려주고 니를닥도록하면 니도튼튼하여질뿐아니라 충치가튼것을 알틀염려도업서지고 니가 장하므로 위병가튼것은 걸리지안습니다



하늘에올라간 오누이

● 崔良根

「엄마ー 배고파요 드러보내면 문열어주지!」

「그래라!」

호랑이는 조화서 떡을 뚝 떼여서 문구멍으로 드려보냇습니다 그바람에 호랑이 발구락이 문구멍으로 쏙드러갓지요 그걸보고 그누이는 모든것을 알아채엇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막 날라구 하는것을 꼭 참고 어떠케 하면 도망해 나갈가! 하고 서로 얼골을 보면서 눈을 깜박거렷습니다。

「그런데 엄마ー 손이 왜그러 거츠?」

한참만에 사내아이가 아조 시침을 뚝따고 이러케 물으니까

「고기굽다 불에 데여서 그러케 됏단다」

호랑이도 시침이를 뚝따고 대답햇습니다。 마침내 오누이는 아조 맘을 단단히먹고 서로 귀를 쭈어다가 한참이나 숙덕숙덕 도망해나갈 꾀를 생각해 냇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케 해라」

거진에는 이렇게 말하고

「엄마ー 그런데 밤은 좀안 주시우?」

「그래ー 밥두 주지 자ー밥 줄께 문열어라 응ー」

호랑이는 또 밥을 서너톨 문구멍으로 들려드려보내며 말햇습니다。

「감안히 계서요 밥먹고 열어드리께!」

오누이는 이러케말하고 뒤로를 문아페 바삭갓다노코 거기다가 밥세톨을 다무며 노앗습니다。 그리고는 오누이는 뒷동열고 살그먼이 빠저나가서 뒷뜰안 우물여페섯는 한나무꾹대기로올라가감안히숨어안젓섯습니다。

連載野談 〔二〕

春香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숙기소원(四)

그 창두가 호기만만한 태도로써 들어오며 리선천판의 우아래 모습을 훌터 본뒤에는 다시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돌려서 그 두하인을 또한 훌터보앗다。

리선천판을 따르는 하인중에 이철(二哲)이라는 손은 말솜씨도잇고 눈치도 매우 빠름으로 자긔들중에서는 매우 활낫체를 하는 사람이엿다。

이때 이철이가 그 창두의긔색이 한편으로는 꺼칠꺼칠해보이기도하고 또한편으로는 거만저 보이기도 할뿐만아니라 리선천판을 유심히 보는양이 수상함으로써 그속을 떠보기 위하야 안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나면서 그 창두를 향하야、

「초면 친구에게 대해서 무례한 말슴이오만은 로형의 풍신은 참 헌헌한 대장부요。」

하는 말로써 그 창두의 마음을 흡족히 칭찬하야 말하얏다。

이철이가 이럿툿 그 창두를 헌헌한 대장부의 풍신이라 칭찬한것은 그창두가 과연 그와 가티 잘낫슴으로써 말한것이아니오 실상은 그창두의 조흔감정을 유인하자는 뜻이엿다。

그 창두는 이철이의 칭찬하는 말을 듯고 은근히 마음이 조와서 나오는 우슴을 참으며 공순하고도 간들어진 경판으로써 이철을 바라보면서、

「천만의 말슴을 내 풍신이 잘나기는 무엇이 잘나요。그저 로형의 말슴이지。」

하며 잘낫다는것을 사양하는듯으로 말대구를하얏다。

이철은 그창두의 사양하는말을 듯고 한층 더 뛰는말로써 그창두를 더 유심히 바라보면서

「아니오。로형이 그 창두복색을하고도 저러케 풍신이 늠름한데 만일 통제사의 복색이나 훈련대장의 복색이나 병조판서의 복색을 하얏든들창안의 명기들은 고사하고、다가튼 남자라도 미치는 사람께나 생길것이요。그러나 아깝소。아까워!。」

하며 그만큼 잘난 남자로써 창두노릇을 하기는 아깝다는듯이 탄식하얏다。

그창두는 이철이의 칭찬하는 말에 갈수록 엉청난데 대하야 속것채리는 조흔 마음이 떠오르며 두억개가 옷쏙하야지고 입이 제절로 벌려젓다。

그러나 그 아깝다는 말이 무엇을 대노코하는 말인지 궁금증이 생기여、

「흥흥 내가 통제사、훈련대장、병조판서의 복색이라니 그게 웬말슴이오。그런데 지금 로형은 무엇을 대노코 아깝다고 하신 말슴인가요?」

하며 매우 그럼이 궁금한 기색으로써 물엇다。

이철은 거짓 탄식하는 태도를 지으며、

「허허。초면친구에게 대해서말슴은 아니고 다만 나혼자서 한탄하는 말이오。」

하며 그 아깝다고할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듯이 하얏다。

그 창두는 매우 궁금증이잇서 이철이프로 한거름을 다가서면서、

「천만의 말슴。본래 사귀친구가 어듸잇나요。누구나 다초면으로써 구면이되는게지。」

하며 비로소 매우 정다운 어조로 인사를 청하엿다。

그 창두와 이철이 서로 통성명을 한뒤에 창두가 역시 공손한 어조로써、

「자!。아까는 초면이어지만은 지금은 구면이구려。그 아깝다는 말슴이 무슨 말슴?」

하며 또한 그 아깝다는 말의 뜻을 물엇다。

이철은 아모리 인사는 하얏슬지라도 말하기가 좀 거북하다는 눈치를 보이면서、

「다른말이 아니라 로형이 저만큼 잘난 풍신으로 만일 어느 양반의댁 자손으로 태어낫든들 과연 통제사、훈련대장、병조판서는 떼논 당상이 아니겟소?。그런데 뵈오니 로형이 그런 처지가못 되것이 아깝다는 말이오。용서하시오。남의 근본은 말하는법이 아닌데。」

하며 그 창두의 얼굴비츨 살피엿다。

「허허。과만한 말슴이요。나가튼놈이 무슨 팔자에。」

하며 그창두는 자긔의 지체를 은근히 설어워하는 태도로써말하얏다。

이철이가 이와가티 가진말로써 그 창두의 마음을 한번휘저 노흔뒤에 그재서는 일변이여구하다는 어조로써、

「대관절 로형은 뉘댁에 계신가요?。」

「나는 지금 병조판서댁에서 거행하고잇소。」

「아아。그러세요。그런데 어듸를 가시는길이요?。」

「에 병조판서대감의 분부를 띄고 풍산땅을 가는길이요。」

「풍산땅은 무슨일로요?」

하며 이철은 벼의 의심이 생기여 물엇다。

武田發賣品

月經不順

卵巢實質ホルモン

オオホルミン

月經寡少、卵巢機能障害
結婚期前後의神經障害

特히、四・五十歲前後 에온다…

下腹痛、腰痛、頭痛、心悸亢進發汗、上氣、肥滿症、眩氣、肩臂痛其他生殖腺호루몬不足減退에基한諸症患에奏効한다

오오호루민은卵巢實質호루몬製劑로서卵巢호루몬의分泌不足減退、缺落等에由來하는神經系生殖器系等全身的諸症에應用된다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臟器製藥研究所

36—435(여)

●宿醉

로머리가무겁고、띵하고、頭腦가明快하지못할때에는곳

ノーシン 노ー신

◇을服用하라◇頭重과腦痛이消散되여明快하게된다◇家庭에는꼭必要◇

明治チヨコレート

"明治百點賞"…!

明治쵸코레ー트의 一르ー페ー벨
에記載된點數를百點모아
서近江明治製菓販賣하는菓子屋에가저가면곳引換하야五錢짜리
明治쵸코레ー트ー판가明治카라멜을드립니다

東京・京橋 明治製菓株式會社

大人이國家의棟梁이면
小兒는家庭의寶貝
愛子의保健할藥은

가제노고 かぜのこ

小兒感氣熱新劑

★カゼピリン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中央館 永樂町

乳姉妹 菊地幽芳原作 吉村操監督 琴系路・佐久間妙子主演

大都映畫現代劇超特作 曉の爆撃 ベン・ライオン主演 監督 デーヴ・ハワード

米國マスコット映畫特作日本版 原作 アル・マーチン シャーマン・ロー

兒雷也 九州男主演 阿部 天下無双怪傑 大都映畫時代劇部超特作 原作 有田彰夫 監督 石山稔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當る十六日大公開 京城神社御祭禮奉祝記念特別興行 大衆料金 拾錢均一

十月二十二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朝鮮名畫突然上映 每日三回晝夜興行上映時間 一回正午十二時부터 二回夜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椅子席二十五錢

映畫時代社超特作品 朝鮮日報連載小說의映畫化!! 原作脚色 安夕影氏 監督 朴基采氏 處女春 風前半上映 여기에나오는사람들 李慶善氏 朴孤松氏 卜惠淑女史 文藝峰孃 金寅圭氏 金一海氏

松竹下加茂特作品 新人大曾根辰夫氏監督 男の唄 やくざの掟 主演 高田浩吉氏 光川京子 結城一郎氏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戀愛劇 로지다 監督…미리오케리오氏 主演…

◇샤ー만그레바ー베루크特作全發聲日本版 奇怪劇 五百年后의地球 監督…하ー리레부氏 主演…

◇大都映畫社超特作品 그로데아입 時代劇 伊達男血笑記 監督…中島寶三氏 主演…阿部九州男氏

優美館 貫鐵町

◇十月二十三日부터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每特輯 國際ニュース

漫畫 愛의起源

코린비어提供全發聲 合奏曲!! 부터이러나는奧樂와歡喜와사랑의 靑春讚歌!撥溂!明朗의學窓으로

いたづら小僧 山本嘉次郎 監督作品! PCL超特作大名畫 出演者 伊藤薫、大村千吉、藤原節子、英百合子、高尾光子、宮崎照子

싸우는巨象 로날드 콜맨氏 로ー레타영그孃主演 英國의印度植民地政策第一頁를裝飾하는그라이부의數奇한平生을描破한天荒의大傑作 유나이딧드社超特作務級日本版 리와ー드빗레스라부스키氏大作品 十月二十三日부터 問題의大作封切

若草映画劇場

十月二十一日封切 二十三日更生日新 パラマウント新作映畫「メキシコGメン」 女 鼠 ガートルード・マイケル ジョージ・ラフト主演 ×××××

獨乙プレゼンス映畫 血の敵 ワルター・ルットマン監督・問題の性病映畫遂に公開の機至る。若人よ見逃す勿れ…。

PCLオルトーキー 放浪記 夏川靜江主演映畫 晝夜二回連續入替無シ 大人五〇錢 學生三〇錢

正音反對派의上疏

國民正音頒布記念을압두고

◉方鍾鉉

이제 아래에 崔萬理等의上疏를 [illegible] 그대로 읽어볼가 한다

[illegible] 이 上疏하야 갈오대

臣等이 보옵건대 諺文은 그 制作함이 至極히 神妙하야 物을 [illegible]하시고 智를 運用하심이 멀니 千古에 뛰어나시도다 그러나 臣等이 區區한 管見으로써는 오히려 疑訝한 [illegible]것이 잇사옵기로 敢히 삼가 上疏하오니 [illegible]가 계시옵소서

一、우리 朝廷에서 祖宗以來로 至誠으로 大國을 섬기어 中華의 制度를 遵守하야 이제 [illegible] 諺文을 지음은 보는이와 듯는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바가 잇도다 [illegible] 만일 다 녯날文字에 本하엿고 새로 지은 글字는 아니라하면 그字形은 비록 녯 篆文에 依倣하엿다고하나 그러나 音에 따라서 글字를 合하옴은 다 녜와는 모두 反되는일이요 實로 根據되는데 업소라 만일 이것이 中國까지 流布되는일이잇다고하면 或은 이것을 글으게 [illegible]함이 잇으리니 이엇지 事大慕華에 부그러움이잇지안으리요

一、[illegible] 九州의안에서 비록 風土는 서로 다른곳이 잇으나 그러나 方言을 因하야 文字를 달리지은곳은 잇지 아니하니 다만 蒙古 女眞 日本 [illegible]의 무리가 各各 그文字를 두엇슬뿐이니 이런것은 다 夷狄의 하는일이요 足히 말할 [illegible] 夏를 가지고 夷를 變케한다함은 드럿스나 아직까지 夷에 變한다는말은 듯지못하엿도다 歷代中國이 다 우리나라를 箕子遺風이 잇다고하야 文物禮樂이 中華에 比하엿거늘 이제 달리 諺文을 지어서 中國을 버리고 스스로 夷狄에게 同코저함은 이것은 所謂 蘇合의香을 버리고 [illegible]의丸을 取함이라하겟스니 이어지 文明의 큰累라고하지아느리요

一、新羅薛聰의 吏讀는 비록 鄙俚한것이라고하기는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다 中國에서 通行되는 글字를 빌어서 語助에 쓰는것이니 文字와 더부러 원래 서로 떠나지 아니하는 [illegible] 그러므로 비록 [illegible]의 무리라도 반드시 이것을 익키고저 하면 먼저 [illegible]를 읽어서 대강 글字를 알고 그런後에야 吏讀를 쓰나니 吏讀를 쓰는사람은 모름즉이 文字에 依하야 能히 그뜻을 通하는고로 吏讀를 因하야 文字를 알게되는사람이 자못 흔하니 이 또한 興學의 一助라 [illegible]

魯迅追悼文 (三)

李陸史

「狂人日記」의다음 連續해나온 作品으로 「孔乙己」「藥」「明日」「一個小事件」「頭髮的故事」「風波」「故鄕」等으로다 新靑年을通해서 世上에物議를 이르켯스나 그後 一九二一年 北京新報文學副刊에 그有名한「阿Q正傳」이 連載되면서부터는 魯迅은自他가共認하는 文壇第一人的作家엿다。

그리고 이러한大作은 모다辛亥革命前後의 [illegible] 思想와行動이 루-스하고 確乎한 한개의 精神도업스며 感動하면서도 흥시건방지고 남에게한개 쥐여질리면 아무런反抗도못하면서 남이自身을 憐憫하면 제度量이커서 남이못될비는것이라고 제대로解釋하야 남을 되는대로 害치는 無知하고 [illegible] 괴팩스러운것을 魯迅은그 「레알리스틱」한文章으로暴露한것이 特徵이엿스니 當時「阿Q正傳」이發表될때 [illegible]

…封… 建社會의生活을 그린것으로 어떠케 必然的으로 崩壞하지안코면안될 特徵을가젓는가를描寫하고 어떠케 새로운社會를 살어갈가를 暗示하고잇다。뿐만아니라 當時의革命과 革命的인思潮가 民衆의心理에 生活의데테일스에 어떠케表現되는가를 가장「레알」하게 描寫한것이다。더구나 그는 農民作家라고할만치 農民生活을그리는데 巧妙하다는것도 한가지 條件이되겟지만은 그의小說에는 主張이槪念에 흐르다거나 조금도無理가업는것은 그의作家的手腕이 卓越하다는것을 말하지안흘수업다。

그리고 그의作品은 늘 農民을主人公으로하는것과 때로는「인테리」일지라도 例를들면「孔乙己」와 孔乙己나「阿Q正傳」의 阿Q가모다 一脈이相通하는 性格을가지는것이니 孔乙己는 舊時代의知識人으로 時代에떠러저서 무슨일에도 쓰여지지못하고 誇張만은노릇스나 生活力은업고 乞人이되야 선술집술상鬪에 一金十九錢의酒價가 어느때까지쓰여저잇는대로 언제인지

…行… 方이 不明되게로나 죽어지는것이라 [illegible] 「農民」의 日傭勞働者 阿Q가 또한 쏵스러운대로 그는革命黨이들어온다는 그것이몹시우쾌해서 革命的氣分이 暴動의一群에 參加는하려고하엿스나 結局革命黨하지도 아무것도못하다가 때마츰 일어난 暴徒의掠奪事件에 嫌疑로誤解되여 (被의不當가지못한 言動에依하야) [illegible] 中國의 누구라도가 全部或은一部分式은 所有하고잇섯든것이다 다시말하면 阿Q나 孔乙己가모다 [illegible]

…平… 素讀과 交友이 모다 [illegible]한사람들은 魯迅이 故意로 自己들을 떠드는者가잇은것을 보고 아모앍수가잇는것이다 그래서 當時中國은 時代的으로 「阿Q時代」이엿스며 魯迅의「阿Q正傳」이 發表될때는 批評界를 비롯하야 一般知識階級은 「阿Q相」이라거나「阿Q時代」라는말을 平常對話에使用하기를 恒茶飯으로하게되엿든것은 中國文學史上에남겨노흔 魯迅의 位置를 짐작하기에 조흔 한개의材料이거니와 그의作家로서의 態度를通하야 一貫하여잇는 魯迅精神을 다시한번 吟味해보는데 적지안흔興味를 갓게되는것은 오늘날우리의 觀念文壇에는 누구나할것업시 藝術과政治의 混同이니 分立이니 決末이난듯도하고 어찌보면 未解決그대로 잇는듯도한 現狀인데 魯迅가티 自己信念이 구든사람은이 藝術과政治란것을 어떠케解決하엿는가? 이問題는 그의作家로서의 出發點부터 究明해야한다。

魯迅은

…本… 來醫師가 되려고하엿다 그것은自己의 『학일』이 무엇이라는것을 알엇기때문이엇다 勿論그때의 自己의 『학일』이란것은 民族改良에 關한 信念이엿든모양이다 그래서 그는 後年「吶喊」序文에 다음과가티썻다。

「나의學籍은 日本어느 地方의 醫學專門學校에 두엇다 나의꿈은 이것으로 매우 아름답고 滿足햇다 卒業만하고 故國에 도라오면 아버지와가티 治療못하는 病人을살리고 戰爭이나면 出征도하려니와 國人의 維新에對한 信仰에까지 나어갈것……」이라고

이것은勿論 少年다운魯迅의로 맨퇴한 人道主義的興奮이엿것지만은 이꿈도結局은 깨여지고말엇다。

「醫學은 緊要한것이 아니다 愚弱한 國民은 體格이 아모리 조타고해도 또 아모리 壯해도 無意味한 구경거리나 또는 구경꾼이 되는바게는 아무것도아니다—中略—그럼으로 緊要한것은 그들을 精神的으로 改變하는것은 무엇일가 나는그때當然 文藝라고생각하엿다 그리고 文藝運動을 提唱하기로햇다」(吶喊序文)

이리하야 그가 當時東京에亡命해잇는 中國사람들의 機關紙「河南」等에 쓰는科學史나 進化論의 解說을 지치우고 文學書籍을 飜譯한것은 希臘의 獨立運動을 援助한 이론과 波蘭의復讐詩人「아담·미케뷔치」「항가리」의 愛國詩人「베르피·산더-」「필립핀」의 文人으로 西班牙政府에 死刑바든「리살」等의 作品이엇다。

事學館筆記 (九)

昔脫解

【蒼匡學人】

新羅本紀에 據하면 第四代 脫解王은 昔脫解라고도 하는데 即位時年이 六十二歲라하고 그는 본래 多婆那國所生인데 多婆那國은 倭國東北 一千里에 잇다하고 그國王의 妻가 有娠한지 七年만에 大卵을 生하엿는데 不祥한것이라 버리라하야 帛으로 싸고 또 寶物을 아울러 櫝中에 너서 海上에 띄웟다하고 이 櫝이 처음엔 金官國(今金海)海邊에 이르매 金官人이 怪異하게녁여 取하지안엇고 또 辰韓阿珍浦口에 이르니 此時가 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인데 海邊의 老母가 이 櫝을 건저서 열고보즉 小兒가잇는故로 그것을 收養하엿다하고 兒의 姓氏를 알수업는데 櫝이 떠드러올때에 鵲이 飛鳴하며 따른까닭에 鵲字를 省略하야 昔으로 姓을삼고 또 櫝을 解하고 나왓다해서 名을 脫解라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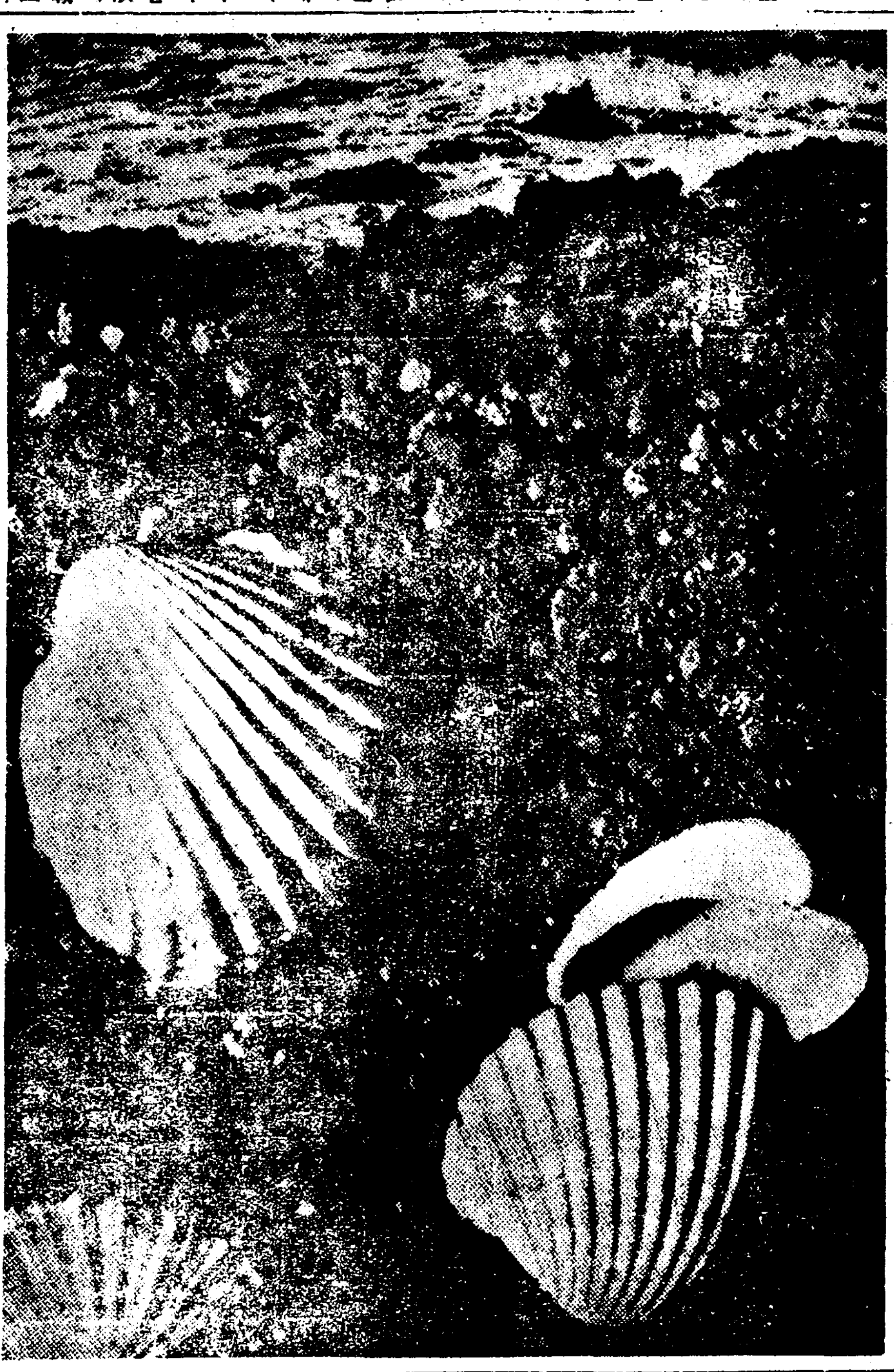
此一篇의 記事는 赫居世의 誕生傳說만큼이나 荒誕한것인데 이것을 駁正하기 爲하야 잠간 星湖僿說을 引用하겟다 同書에 按하면 「金海의 許后와 脫解는 [illegible] 이런 일이 잇섯다고 假定하드래도 海에 漂하야 偶然히 온데 不過한것이다 드르니 世宗時에 七歲女兒가 濟州에 來泊하엿는데 舟中에 一琴一棹과 [illegible] 宮中에서 養育하야 長成하매 王孫의 副室을삼엇는데 [illegible] 諸公이다 그의後孫이라한다 또先王朝에는 [illegible]가 西海에 來泊하고 그속에 四歲兒가잇섯는데 [illegible]家에서 收養하면서 朝에白하야 姓을賜하되 [illegible]中에魚網이잇섯대서 魚氏라하고 그子孫은 武擧로써 [illegible] 此類가 만일三國의 時에잇섯스면 반다시 奇幻을 增飾하야 無限한 恍惚을 말하엿슬것이다云云」 하엿스니 昔脫解의 漂着이도 한 이런類에 不過한것이라하겟다 [illegible] 七年卯生說가튼것은 妄說이어니와 倭東北千里에잇는 多婆那國이 [illegible]

[illegible] 이라고도 한다하엿는데 [illegible] 第十二世는 沾解 第十六世는 訖解이것을보면 [illegible] 그러므로 第四世脫解의 解도 그러한 解로 [illegible]

그리고 그의年齡에 關해서는 [illegible] 矛盾이 뵈이는것이 [illegible] 即阿珍浦에서 老母가 收養하든해가 赫居世三十九年이라하엿스니 이해를 生年으로 [illegible] 十六歲가되는데 [illegible] 即位時年이 六十二라하엿는가 [illegible]

[illegible] 의生命은 赫居世在位三十九年이올코 即位時年六十二는 七十六의 誤라고보는것이올켓다 [illegible]

가을의카메라



가을의 海邊은 쓸쓸하다 여긔는 깨여진 魂만이 누어잇는곳—化石이 된 [illegible] 年代가 어리고나! 껍질은 孀婦의 재빗어린 心情은 깨여진 조개껍질속에서 애끗는 傳說을 차저본다

니-체와現代文化

—그의誕生日을記念하야—

◉金亨俊

以上에서 나는 特히 粗雜하게나마 니-체의 超人思想을 紹介하엿다 그러면 現代에 살고잇는 우리는 이러한 니-체思想에서 무엇을 攝取할것인가?

지금까지 一部의사람들은 니-체를 野卑한 本能主義者 低級한 利己主義者라고 불러왓다。그것은 니-체의 權力에의意志를 單히盲目的 本能的인것으로 [illegible]

[illegible] 니-체의 [illegible] 權力에의 意志는 [illegible] 低俗한 現實人間을 超克하고 보다 새롭고 强大한것을 生産하며 創造하려는 意志이다。우리는 니-체에게서 이러한 生産的 創造的 意志를 배우지 안으면안된다。나날의 데카단的 氣分에 [illegible] 우리의 現實에는 니-체의 元氣潑剌한 生産的 創造的 意慾이 얼마나 淸涼한 刺戟을 줄것인가?

그러타고 우리는 니-체의 思想을 無條件으로 歡迎해서는안된다 [illegible]

[illegible] 니-체는 人間가운데서 高貴한것과 卑賤한것 두가지 類型을 보앗다。그러나 그러한 두가지 類型은 實際에잇서는 同一人間의 內面에도 潛在해잇는것이다。高貴한 人間에도 卑劣性이 잇스며 卑賤한 人間에도 高貴한 人的인것이잇다。니-체의 超人은 [illegible] 自身의 內面에잇는 高貴性과 [illegible]

[illegible] 이러한 새로운 人間을 要求하는것이다。

漢詩

題 白頭山

押 峯·桐·[illegible]

佳作之一之二

[illegible] 禹鍾李

作鎭東邦是此峰
萬千山嶽盡朝宗
四時雪擁頭疑白
絶頂天池氣所鍾
雨露恩隆開草木
雲霞彩爛戱魚龍
無人敢起登攀想
也許飛仙躡秘蹤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十一月十日

(薄謝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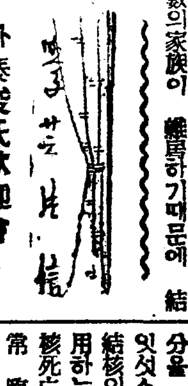
結核撲滅問題

—社會醫學的考察— (三)

文仁柱

그들의 經濟的條件이 말을듯지안는다。어떠한 조흔療養法이 잇다고하드래도 그들의 生活環境 住宅 勞働條件等을 改善하지 안는 그들의 經濟的水準이 向上되지안는以上 모든 療養法은 所用업는 物件이 되고만다。現下의情勢로는 그들의 經濟的向上은 꿈에도 바라지못할 形便이며 榮養分잇는 飮食物은 求景도 못할것이고 그날 그날의 밥바리 때문에 過度한 勞働에 시달려 肉體의 安靜은 바랄수 업고 하로終日기다려도 해비츨구경할수업는 狹小한房안에 多數의家族이 雜居하기때문에 結核은 家族에게 傳播되고 또 同一한生活環境에잇는 家庭으로傳播하야 끄칠바를 몰은다。結核의 發生과 住宅과의 關係는 히미簡單히 記述한바어니와 結核의 發生에 關하야는 住宅의 大小보다도 起居하는 房數가 重要한意義를 가지고잇다。房數가적은家庭에서는 房數가만흔家庭보다 結核의發生及死亡數가 만타고한다 이것은 同一한室內에서 多數의家族이 患者와 直接으로 接觸하야 生活하기때문에 容易하게病이 傳播하게되는것이다。

먼저 結核病의治療에는 榮養分을 攝取해야한다고 記述한바잇섯스나 事實上 高價한 榮養은 結核의防止及治療에 有効하게作用하는것이다。榮養의不足이 結核死亡을 增加시키는것이니 日常 臨床醫가 各 個人의 結核患者에 잇서서 榮養分을 多量히攝取하는患者는 그病勢에 好結果를주게되나 榮養分을 엇지못하는 貧窮患者는 그結果가조치못하게되는것을 보고잇다。各個人에잇서 그러하거니와 다시 나아가 一國家에잇서서도 그러하다。歐洲大戰때에 獨逸國民은 거진 榮養不足이되엇든것이며 그때에 結核死亡率이 平和時에比較하야 大端히 高率이엇다고한다。



朴泰俊氏歡迎會

多年間米國에 건너가서 音樂을 研究하고 月前에 歸國한 朴泰俊氏를 歡迎하기위해서 朝鮮音樂家協會의 主催로 오는 二十五日午後二時에 市內食道園에서 歡迎宴을 열것이라는데 會費는 一圓(當日持參)이며 多數의 來參을바란다고한다。

新刊紹介

◆新時代 第三號(探求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七三 新時代社 定價十錢

◆批判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二三七八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監理會報 十月號 發行所 京城府冷泉町三一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曆

十月廿五日 (日)

陰戊戌九月大(十一日)

庚辰·金·虛·破

●祭祀에宜함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陰二十四日)

病弱兒를 健康兒로!

育兒의妙理는 어머니의손에

어린아해를 튼튼케함도 虛弱하게자람도 모도 어머니의關心에달린것이다

『우리아해는 엇재弱할가』하고 恨嘆하기前에 育兒에對한關心을아니갓지나안엇는가 깁히 考慮할必要가잇다

그리고 萬一 어린아해의 病弱의原因이 體質에잇슴을 알엇슬때는 겨울이되기前에 이조흔 가을철을 利用하야 體質改善을 하지안으면 안된다

거긔에는 宇津救命丸과가튼弱한兒孩의體質을 改善하고 胃腸과 呼吸器를 튼튼케하는 小兒强壯藥을 常用케함이 極히 効果的方法이다

이러한境遇에는!

小兒食病·虫氣·發熱

消化不良·靑便·夜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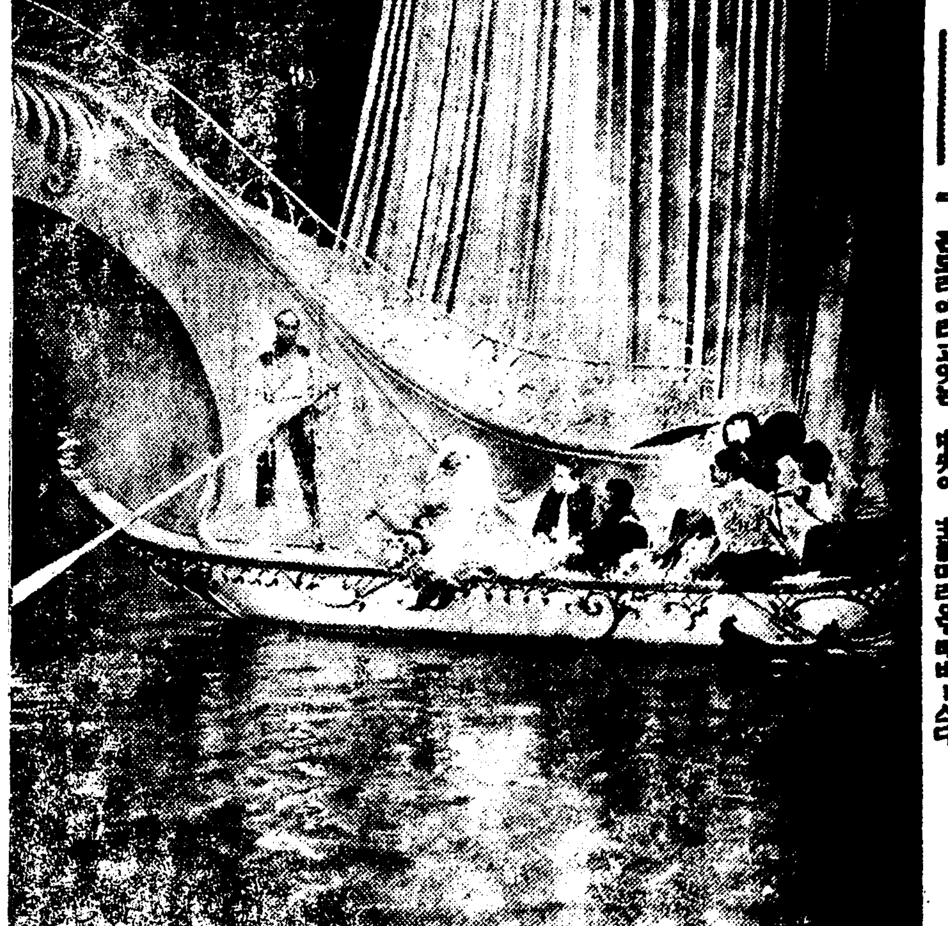
百日咳·胎毒·四季感氣

虛弱兒의體質强化에!

宇津救命丸 (우즈 규 명 환)

總代理店 [illegible] 玉置合名會社

(廉價) 卅錢부터拾圓까지各種 · 藥店 · 百貨店藥品部에도잇다



桃林스냅

와ー나ー·뽀스모포리탄映畫 『거리의레이벌』의 셋트撮影으로 곤도라에타고잇는 中央이 主役마리온·데비ー스다

라디오

二十四日 (土曜)

◇午後六時 어린이科學 『별이야기』(一) 韓琛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徐椿
◇同七時三〇分 講演 『生活內容과建築』 李允淳
◇同八時 歌曲 一、羽調平擧 二、羽調頭擧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洋琴 金花香 張明玉 大笒 金相淳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배따라기 三、寧邊歌 四、난봉가 五、자진난봉가 李蘭玉 鄭錦桃
◇同九時 古調 〃重陽이야기〃 車靑吾

第一放送

◇午後六時(大)童話劇
◇同七時四五分(大)옛날이야기
◇同八時(大)라디오·드라마
◇同八時一七分(大)獨唱과合唱
◇八時五〇分(大)라디오風景
◇同九時 時事解說

二十五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鎭國名山 二、唱劇調 水宮歌 金演洙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 어린이映畫이야기 〃가음쪽日날〃 成東鎬
◇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盧基南
◇同七時三〇分 洋樂 朝鮮日報社主催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入賞者
◇同八時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달거리 三、小春香歌 四、平壤歌 楊瓊蘭 申花中仙
◇同八時三〇分 脚本朗讀 『第三者』 宋在魯
◇同九時 管律 一、靈山交奏 二、幷唱 洋琴 鍾孝石 大笒 金一雙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農夫歌 一、정메는소리(西鮮地方) 二、農夫歌(南鮮地方) 崔貞子 吳太弘 丁貞希 趙相鮮 金素姬 張淑

第一放送

◇午前七時四十一分 農村講座
◇同十一時卅分(東)野球 東京大學리그戰
◇午後六時(大)音樂物語 大阪放送童話協會
◇同八時(東)新作의저때 物語及
◇同八時卅分(東)宮園節 宮園千蟲
◇同八時五十分(東)小唄 松風 鶴
◇同九時(東)室內樂 鈴木[illegible]

二十六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古謠 『吹笛山中의夫婦』 白岳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流行에나타난現代女性』 尹聖相
◇同二時四〇分(東) 伊藤博文公銅像除幕式實況—新龍院廣場에서中繼(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連續兒童劇 『의지업는』 에ー마ー로原作(1)(鄭英徹脚色)
[配役] 崔玉順 外十六名 新興童人會 演出 鄭英徹 効果 陳浩星 音樂 綠星管絃團 音樂指揮 柳基興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寶專教授 洪性夏
◇同十時三〇分 常識講座 總督府事務官 宋燦道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滄浪歌 (나)唱劇調……赤壁歌 鼓手 姜太弘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秋風感別曲 外 一、秋風感別曲 二、孔明歌 三、寧邊歌 四、山念佛 白牧丹 鄭錦紅
◇同九時(大)吹奏樂—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軍艦行進曲 瀨戶口藤吉作曲 二、大行進曲 『正正堂堂한軍容』 엘거ー作曲 三、序曲 『오베론』 웨ー버ー作曲 四、觀艦式行進曲 『齊唱付』 池田敬之助作調 佐藤淸吉作曲 聯合艦隊司令部付軍樂隊 —指揮—山崎 勝彥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佛語講座(十五)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須崎照雄
◇午後〇時五分(東)謠曲 松岡旭岡
◇同一時(東)婦人講座 石田하루
◇同六時(大) 이야기와管絃樂 大阪라듸오、오게스트라
◇同七時三〇分(東)講演 仁科芳雄
◇同八時(東)俚謠 鹿兒島縣評議會
◇同八時二〇分(大)漫才 一輪亭花蝶、二遊亭川游
◇同八時四〇分 箏曲 湊毅
◇同九時(大)吹奏樂 聯合艦隊司令部付軍樂隊

試寫室

『將來의世界』

H·G·웰스原作

H·G·웰스의 씨나리오에依한 科學者가본 未來世界를 그린映畫다 그리고스펙타클 映畫다 이映畫가 우리에게주는興味의 焦點은 두個가잇다 첫재는 이것이 웰스의 씨나리오에依한映畫라는것과 둘재는 이映畫가 웰스의空想을 어떠케表現하엿나하는 映畫그自體의 表現可能의限界問題에 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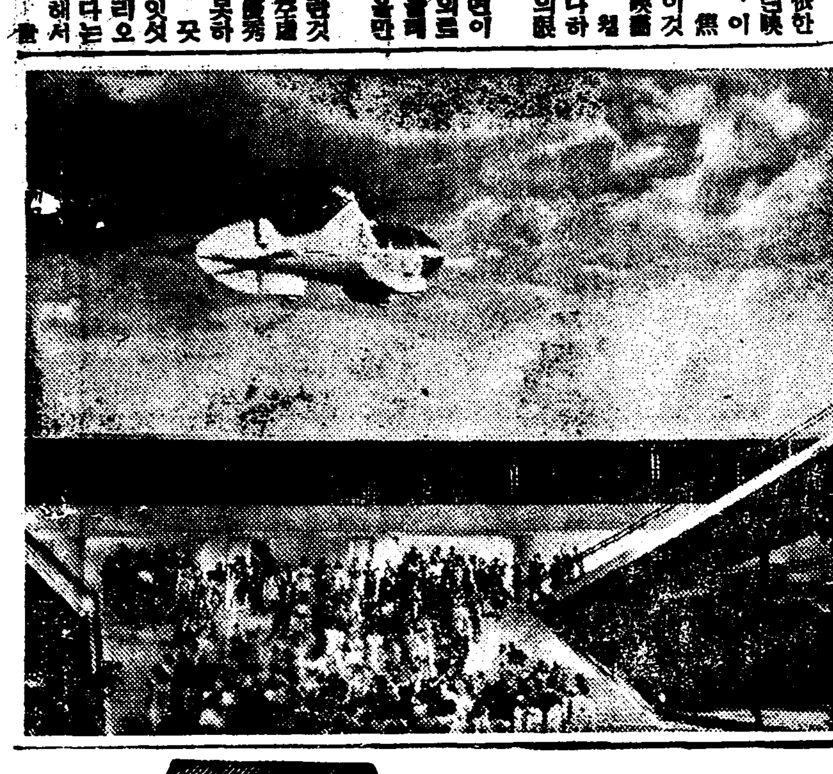
그러나 結論을 지워말한다면이映畫는 오늘날進步된 數多의트릭크를가지고 사람의눈을 놀래게하기에 充分한 스펙타클을만드러내엿다

그러나 웰스의 未來觀이란것이 어리둥절하고、孟浪한 空虛가 만핫기때문에 技術의 優秀도 內容과說伏力을 가지지못하엿다 다만技術의 硏究에만 끗처버린곳이 잇는關係가 여러곳잇섯다 아무리보면 映畫는 씨나리오에 決定的인制約을 밧고잇다는것이 切實하엿다 그러라고해서 在來의科學이업는 世界未來記映畫와 한類에屬한다고 할수는업는것이다

첫재 文豪웰스의 씨나리오인까닭에 우리는 여긔에크다란關心과準備를 가지고對하여야할것이다 그럼으로 그의世界觀이論據를드러내지도안코 그냥곳結論으로서 나타나고잇기도하며 自己의 有利한事件에 刺戟하야서 만의 發明의事件의展開가 可能한 다시말하면 [illegible] 고시작된다

內容은 一九四〇年[illegible] 크리스마스날밤으로부터 [illegible]의 危機가 여긔저긔에 나타나고잇다 [illegible] 바다를 넘어서 [illegible] 市街가업는 이다 이場面이어 映畫에 잇서서 第一現實的인곳이다 그리고 스펙타클로 서의 『윌리암·카메룬·멘지ー스』의 演出手腕을 보여준곳도 이場面이다 이場面에잇서서의 群衆의取扱은 정말놀라웟다 여기서부터科學에依한 人類의進步와 戰爭問題等이 展開되는데 벌서웰스의 思想을 엿보게하엿다 웰스는 『에브리타운』이라는 都市를 그일홈이 말하는것과가티 世界의어느그都市를象徵하얏스나 決局은 英國의어느一都市로 局限시켜노핫다

그리하야 事件의展開는 이에브리타운의 一都市에서는 局限되고 다른世界上에 나타나야될 附隨事件을 全然取扱지 안햇고 나타내지도 안허 그 神秘性을 合理化시키라고 遠避해버렷다。이 映畫의 致命傷은 實로 여기에 잇섯다 一九七〇年 戰亂에 依한 荒廢 惡疫彷徨病에서부터 겨우 일어난 『에브리타운』은 『보스』라는 好戰的이며 排他的인 支配者에 依하야 統治되고잇다 科學은 無用의것으로되엿다 여기서 地中海를 中心한 科學者의 國際結合이 이러나고 이都市의 奪還工作이 成功하야 여기서 再建의 努力이 始作된다 웰스는 科學에依한 進步만을 念頭에두고 다른것은 생각지도 안흔것갓다 그러므로 二〇五四年에 再興된 『에브리타운』는 다만 科學萬能의 都市다 그리하야 現代의 都市와 未來都市의 差를 보이는데 家屋의 構造와 衣裳의 單純化等을 畫面에 나타내엿스나 그것도 아모런 根據를 세우지안코 다만 空想的으로 强制한까닭에 아모런 說伏力이업고 사람으로하여금 首肯할수업게하엿다 여긔서 그는 感情을 藝術로하고 藝術과科學을 對立시켜서、科學만이 世界를救하고 人類의幸福을 가저온다고 結論을나리고 이映畫는 끗을마첫다 보고난뒤에 남은것이라면 그저 이映畫의 엄청나게큰規模와 總指揮 알렉산더·코르다의 意圖와 實行力에 머리를숙이엿스며 映畫技術의 進步에 놀랠다름이엿다 興行價値로는 첫제이映畫가 가지고잇는問題化의 힘이아모리케나 누구라도 한번보아야 하겟다는 慾心을자아내는데 잇다고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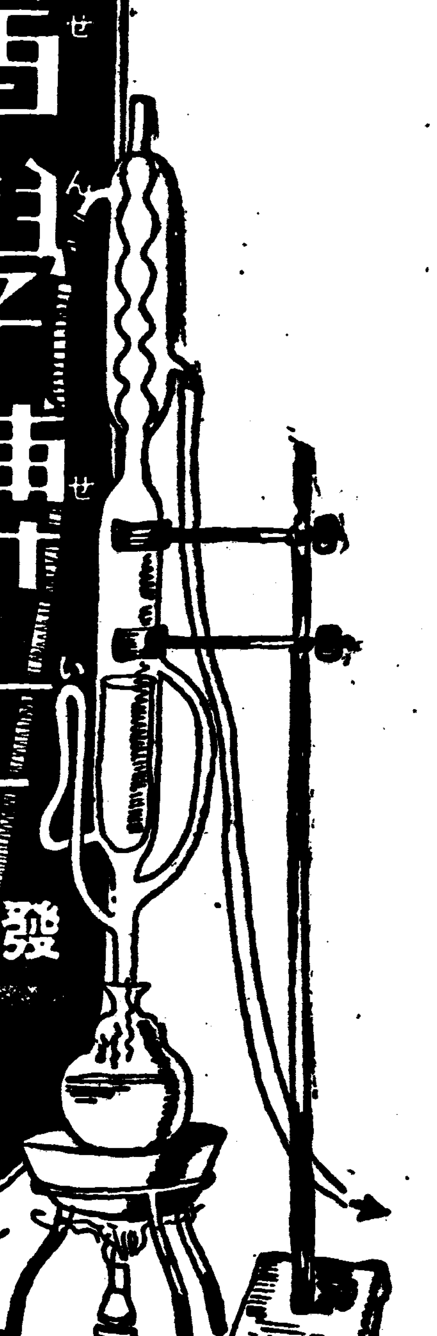
(사진은將來의世界場面(론돈·필모製作、H·G·웰스原作 윌리암·C·멘디ー스監督 알렉산더·코르다指揮 레이몬드·마시ー主演 製作費用五百萬圓登場人員三萬五千名——十月二十九日부터市內團成社에서封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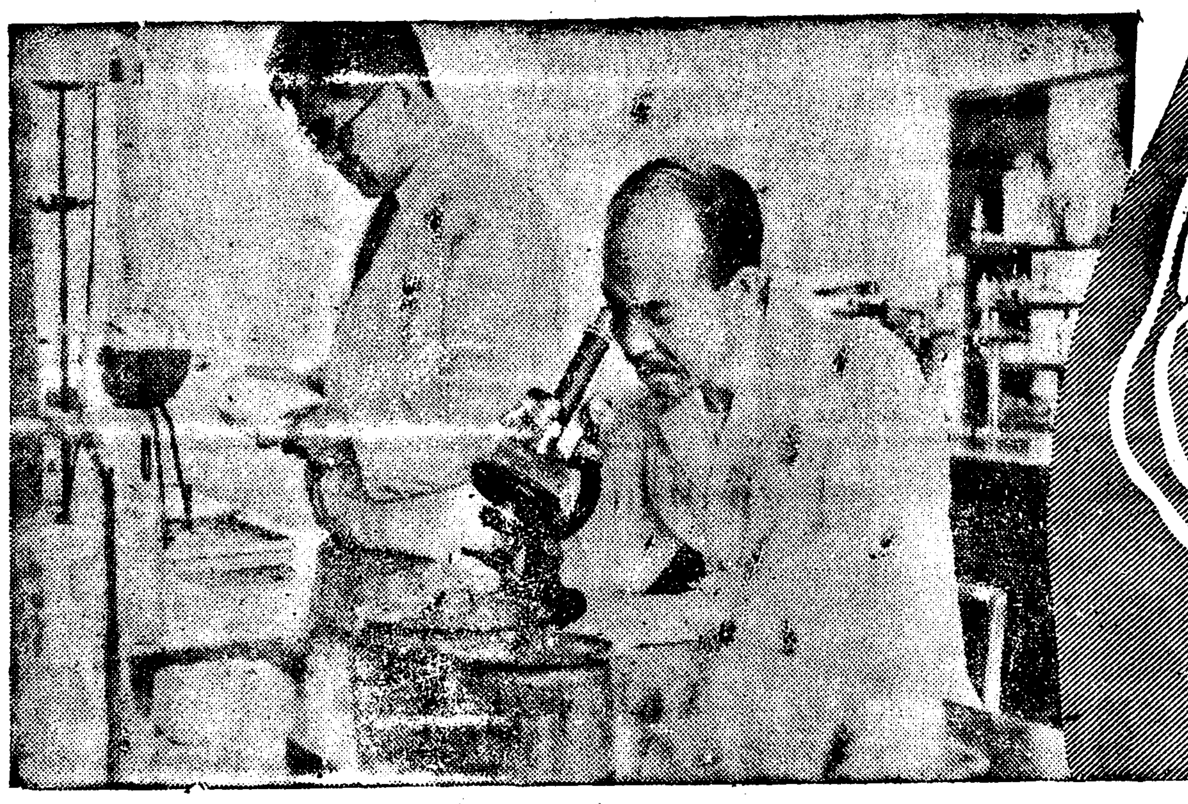
美容皮膚科의 醫學博士 發明

크림의掌判斷

먼저크림을손으로문질너보라 깜작놀란다 肝要한 크림分은 손바닥一部에하야케부터잇슬뿐으로퍼지지안는데 이것은鹼化度가不充分하든지過度한證據로이러한크림은一部分의살결을덥는고로여드름 疥瘡 部分的얼룩배기等의原因이된다

精撰한高貴原料와 最新設備로 此類가업는 鹼化狀態로 創製한 마스타ー바늬싱은 여간均等한배여니며 모르게 살결로滲込되며 마스타ー의獨特한스킨호루몬性劑의作用으로살결의新陳代謝를旺盛케하고 여드름가튼皮膚障害를막어有毒菌의 侵入을防止함으로化粧下、面刀後에 第一이다





마스타ー 바늬싱 콜드 에配合한 獨逸特製 스킨호루몬性劑는

高貴皮膚榮養素로皮膚深部에滲透하야細胞에美의榮養과活力을준다또老癈物을巧妙히업새바림으로 皮膚는언제든지生理的으로正常狀態로保有되고여드름부흠가튼것은念慮업서彈力잇는若肌를育成하는것이다

紫外線

마스타ー 콜드 크림

스킨호루몬性劑 + 비타민D

綜合美化力

洗顏に白粉おとしに お肌の營養クリーム

マスター(コールド)クリーム

最適の鹼化·營養·滲透力第一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ー크림

バニシング 바늬싱

慶南織物界活況
年產三百萬反
販賣價格도 一千百餘萬圓으로
比前年二倍半增加

【釜山】 경상남도 산업과(産業課)의 조사에의하면 소화십년도에 도내에서 생산된 각종직물은 견포(絹布)、면포(綿布)、방적마포(紡績麻布)、대마포(大麻布)、인견포(人絹布)등이어 이금액도 일천일백삼십여만원을 돌파하야서 작년에비교하거대 약이배반이상의 대격증이라하며 각 종류별생산고는 다음과갓다한다

絹布	數量	六八七五一反
同	金額	三三〇九七四圓
綿布	數量	二二五一七八三反
同	金額	九二九七八六二圓
紡績	數量	一六二、五二九反
同	金額	五〇七、三四八圓
大麻布	數量	三六九三七五反
同	金額	六五六、一八七圓
苧麻布	數量	四二九一二反
同	金額	一〇七、六九一圓
人絹布	數量	一七七六七三反
同	金額	四二六四四五圓
其他	數量	七六八五反
同	金額	二八四九〇圓
合計	數量	二九八〇七〇八反
同	金額	一一三四四九九七圓

工費三十七萬圓의
龍興江鐵橋架設
지난十六日부터着工

【咸興】 지난십륙일부터 길이칠백메돌 공비삼십칠만여원으로 함남영흥군 룡강하수공사는 근근그완성을 긔하고 잇는바 진평면 진흥부근 전주안경으로 부터 진흥신시(龍興新市)에일으는철교를 놋키로결정되여 종독부당국에서는 그설계에 분망하야오든중 지난달말에 총경비삼십칠만여원으로 일부토목청부는 함흥(咸興)가지다조(?)중에 실시하게되여 지난십육일부터 가교공사(架橋工事)에 착수하얏다하며 남어지 금액으로는 철재(鐵材)세멘트 철부에 해당하리라는바 해공사의 완성은 명년칠이월말까지라고한다

盈德、寧海、南普校
增築工事進捗

【盈德】 경북영덕군내(盈德郡內)에는 일면일교제는 벌서완성되엿스나 남정(南亭)영덕(盈德)녕해(寧海)삼교에는 모다사학급뿐이며 따라서 입학난은 해마다 더하야 입학하는 아동의 감이불지하든바 녕해、영덕후원회(後援會)에서는각각일학급식 증축키로 예산되여 영덕보교에서는 공비일천구백삼십원 녕해보교는 이천사십구원으로 구월이십일에 착공하여공사중인바 준공가든 십일월이십일경이라고한다

鰛粕莚自給計畫
五個年間에二百五十萬枚까지
咸南의一石鳥의妙案

【咸興】 함남도에서는 농촌경제의 종더유래함을위하야온(?)박(鰛粕)의 포장간조등에 소용되는섬(莚)의 도내자급(自給)을목표하고 래년도부터 오개년계획으로 간조에요하는 간연(干莚)포장에 요하는 건연(乾莚)등을 세우고잇다 이백오십만매의 생산계획을 세우고잇다 현재 함남도연안에서 제조되는 온박(鰛粕)은 륙백오십만관으로 그에소용되는섬건치(莚)는 이백오십만매 가량되는데 지금 도내에서 생산되는것은 팔십만매박게는 되로되며 남어지는 전부 외지에서 공급을받고잇는데 이렴으로 온어섬어귀에는 섬건치의 공황을보아서 그가격이폭등하야 비명이놉다 그렴으로이번의 이건치자급(自給)계획은 어촌(漁村)의일다도음이될뿐만아니라 이백오십만매의대금 이십만팔천원이라는큰돈이 농촌에 떠러지게될터로 결국 농어촌(農漁村)이함께 윤택하야 질것이라고 긔대가크다

井邑의一大羞恥
自轉車會中止
運動場關係로

【井邑】 본보정읍지국주최와 상공회와 정주읍내 십이개소 자전거상점의 후원하에서 전조선자전거경주대회를 오는 십일월삼일에 개최하랴고하엿든바 장소문제로인하여 각지방 일반인사의 손꼽아 긔대하고잇든 동대회는 결국 중지되고 말엇다는데 발서부터 각선수들의 맹렬한 련습도 그기술을 발휘치못 하게되엇슴은 실로 유감이며 실사위의 명종을받고잇는 정읍군이며 삼천여호에 일만오천여인구를 포용하고잇는 농촌대도시의 정호를뜻고잇는 정주읍에 무슨 대회든지 넉넉히 진행할수잇는 운동장하나도 업다고 일반이울 외가분개하다는바 일반은 당시에 하로밧비 공설운동장이설치 될것을갈망하고잇다고한다

눈물겨운同情
趙熙連氏美擧

【咸興】 삼남각지를 휩쓸어하로아침사이에 수십만명의 의식주를빼아서간 풍수재의 애끗는참상을당한 수만흔 리재민들의 현재 생활은 그야말로 당국의알선으로 지난십구일 함북회녕유명이 합격선을하고 로동하러 회녕으로오는길에 차중에서 함남홍원군전진면 남흥리(洪原郡前進面南興里)에사는 조희련(趙熙連)씨가 그엽헤이 귀한에 떨며 다정한 고토를 리별하고 남부녀대로솟 량의길을 떠나오는 비참한 정경을 살펴보고 그의대표자 권씨(權錫權)씨에게 사정을 말하고 현금이십원을 내여주며 사소한 금액이나마 열행에게한때 점심이나 사드려라고하며눈물겨운 따뜻한동정이 잇섯슴으로권씨이하일동은 그갸지함을마지안엇다한다

明太漁業의許可
千餘名申請者中에
不過四百五十隻程度

【咸興】 매년명태어긔를 당하야 당어업자들의 초조와 주목을집중시키고잇든 명태어업 저각망(底角網)허가도 인제는 거이절정을 필하고서 근일중 공시(公示)하게되리라고 하는데 금년은 지난칠월말의 신청긔한까지 구백십여건의 압도적 신청이잇섯다고하며 그중에서 엄선(嚴選)한 결과 위선제일차로 삼백오십척을 결정하고잇는데 이제부터또다시 와백여명가량을 바업선하야 모다사백오십명이나 허가하여줄방침이라고한다 이것은 례년에비하야 다소간 적은데 이로말미아마 그허가에 들은 매일에도 몃명식 긔여하 생활의길을 못찻고 잇든어업자 허가하야달라는 탄원서제출로서 수산계원의 두통이심하다고한다

宣川郡收穫豫想
十萬二千餘石
比昨年多少減收

【宣川】 선천군하의 금년도수확예상고는 십만이천륙백석(石)으로 작년도실수확고에비하야 다소감수를 예상한다는바 정조(正租)의 잘(質)로는 남면(南面)석산(石和山)근방이 단연수위를 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고한다

朝鮮酒品評會
馬山稅務署內서

【馬山】 이십사일부터 마산세무서(馬山稅務署)내에서는 조선주조협회대구지부(朝鮮酒造協會大邱支部)주최로 제일회제오구조선주품평회(第一回第五區朝鮮酒品評會)를개최하고 이십륙일오전열한시부터서는 그표상수여식을거행하기로되엿다는데 동품평회에 출품되는종류는 약주、소주、약반、곡자등으로 구역은 통영、하동、마산(統營、河東、馬山)세세무소(三稅務所)관내로 제한되엿다고한다

洛江流域災民에
砂防賦役免除
換算金은國補로充當

【釜山】 경남、락동강(洛東江)류역 사방공사사행지역 륙십팔개면은 지난번의 대풍수해로 다대한 피해를 입어서 동지역내에 거주하는 총호수 팔만팔천삼백오십호중 이만오천이백이십구호가 라재호수이고 그중랭면오월 맥수확(麥收穫)기까지 구조를 요하는 극빈자가 일만오천이백이십팔호이라한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이들리재민이 사방공사부역중 미취여부역 사만찰천오십팔인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부역면제의 환산금액이만삼천오백이십원은 국고보조를 어더서 공사를 하고자방금 보조인가신청을 준비중이라한다

新乫坡에地震

【元山】 현재 함남도연안에서 제조되는 ... 원산측후소에달한 정보에의하면 ... 일경이라고한다

갈라야갈곳업서
歸巢못한土幕民
三浪津驛에五十餘戶의多數
冬節압두고벌벌떠러

【三浪津】 삼랑진은 홍수재해지로유명한곳이다 그러나 금번처럼십여대통되는 대홍수를 경험한적은 업다 그러든것이 금년의홍수는 수십년래 처음의피해가 무려일백삼십만원에 달하얏다 그만큼 참상은극한중에도 가장지참한것은 가로상에서 제방에서 산언덕에서 생사지경에 방황하고잇는 오십여호의 토막민들이다 어도리판들은 생사에 그들이 지절이바라고원하는것은 차시이의 아모것도업다 그러나 사변(四邊)에는 물근(물근(物根))조차업는터로 그처지에 맛스므로 로숙(露宿)을 소한보조비로서 집을지을수업스며 근근 거듭하자안을수업다 함으로 그들은 오는 겨울을 무서워하는 긔한의존위에 떨고잇다

사진…三浪津土幕의一部

進永公普校生
水害災民同情

【進永】 삼남대수해의 보도를듯

清州公立農校에서
創立廿五週記念
來月一日同校講堂서

【清州】 청주공립농업학교(清州公農校)는 금번으로 창립이십오주년을 맛게되야 동교에서 찬립이십주년긔념식을 오는십일월일일 동교강당에서 성대히 거행한다는데 그날 운동회(運動會)전람회(展覽會)등을 거행하는바가지에 산재한 동창생은 전기긔념식에 다수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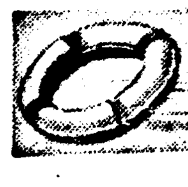
地方人事

▲片山佐一氏(朝鮮商業銀行三千浦支店長)新任人事次 本報三千浦支局來訪
▲田口茂吉氏(前夫餘警察署長)慶北道警察部保安課轉任人事次 本報夫餘支局來訪
▲寺木重氏(群山府內支店長)新任人事次 本報群山支局來訪
▲高橋榮氏(前夫餘公醫)今番?任人事次同上
▲中野重四郞氏(前夫餘警察署警部主任)慶州署警務主任榮轉人事次 本報慶州支局來訪
▲吉田二郞氏(前宜寧警察署高等係主任)釜山水上署榮轉人事次 本報宜寧支局來訪
▲崔榮濟氏(釜山署長田(公醫)就任人事次 本報釜山支局來訪

愛慾의彼岸

【133】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이때에 두 사람이 맞을에 담아서 듣시계가 산수구비를 돌아서 나온다。긴 바지랑테 들에 우흘정스자로 가롱스대 들을메고 그 우에 넙스하 나를 노코 그 우에 시체를 누이고 엄시귀 붉은 나무가지를 터릿스나 흰 옷이 여긔저긔 들어낫다。

일동은 이 시체가 오는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한청했다。

로장은 일어나서 한청했다。

『어이、무거워。웨 그러케 무거워』

하고 시체를 메어던 사람들이 맛들에를 나려노코 이마에 땀을씻는다。

『무겁기는 무어가 무거워?』

하고 로장이 시체의 머리를 터러 하나를 둘이서 메고 무거워

『이 이가 내 딸이 대기던 학교 선생이오』

해서 딸이 그러케 슬퍼하는 라유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알지 말도록 설명했다。

『네、그러시오?』

하고 로장은 헤련을 보앗다。

『자 어서 가!』

하고 로장은 인부들을 재촉했다。

인부들은 헤련이가 집어던진 나무스가지를 집어서 도로 시체를 덥헛다。

시체는 다시 가기를 시작했다。

길장로 일행도 싀심한 헤련을 더리고뒤를 따라서 장안사로 나려왓다。

×

강은 어찌해서 죽을 길을취했는가。강이 비로봉에서 헤련을 작별하고 마하연을 향하고

『아이 선생님!』

하고 헤련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긔색하려든다。

『선생님이라니?』

하고 길장로도 놀라서 시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사람이 강영호아니야?』

하고 눈을 크게 뜬다。

『다 아시는 량반입니까。』

하고 로장은 영수를 모르던해도 인연이로군』

하고 로장은 영수를 센다。

한참이나 어쩔줄을 모르던헤련은、

『선생님! 선생님!』

하고 떨리는 몸 떨리는 음성으로 부른다。

문임과 주상도 시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잘 감겨지지아니한 눈、피가튼 시줄이 약간 흐른 입。

헤련은 미친 사람모양으로시체를 덥헛던 나무스가지를 다 집어던지고 그 시체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엎드렷다。시체는 흰 양복바지에 흰노타이 샤쓰를 입고잇섯다。

『헤련아! 헤련아!』

길장로는 헤련이가 하는 일이 못 맛당해서 불럿다。

『헤련이』

하고 문임은 헤련을 안아이르켯다。

헤련은 순순히 문임에게 안겨서 시체에서 떨어젓다。헤련은 정신 일흔 사람과 가티로장은 로장을 보고、나려올 때에 그는 제의자련을 기피 뉘우첫다。

『그게 무에냐? 왜 석자의태도를 취하지못하고 감정을 노하주엇느냐』

이러케 강은 저를 책망햇다。

『아모것에도 움지가지 안는 마음』

이것이 강의 소원이엇다。강은 비로봉에서 마하연을거처서 장안사로 나려오는 동안에 한번 흐들렷던 마음을 다시 바로잡으랴고 무진 애를썻다。사오년간 진심갈력해서 싸하노흔 수양의 탑——움지기지 안는 마음의 탑이 우르루 일순간에 문허저 버린것이 애석햇다。그 문허진것을 다시 모아찾호려햇스나、되지아니햇다。도모지 오관과 마음에서 떨지지아니하는 헤련。그 모양、그 빗、그 소리、그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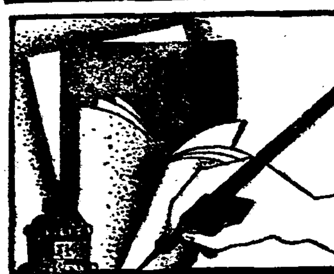
강은 장안사에 나려와서 려관에 들어 한 밤을 지나는동안에 도모지 잠을 일우지못햇다。자꾸 헤련이가 기다려지고 그리워젓다。

강은 밤에 려관에서 뛰어나와서 컴컴한 수풀스속에 혼자 업드려 한 업시 길게 긔도를 하엿다。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의 마즈막 긔도를 생각하면서 웃이 이슬에 쪽 젓도록。

『이기게 하소서、이기게 하소서。소중한 한 중을 그럭치게 말도록。힘을 주소서。』

를 반복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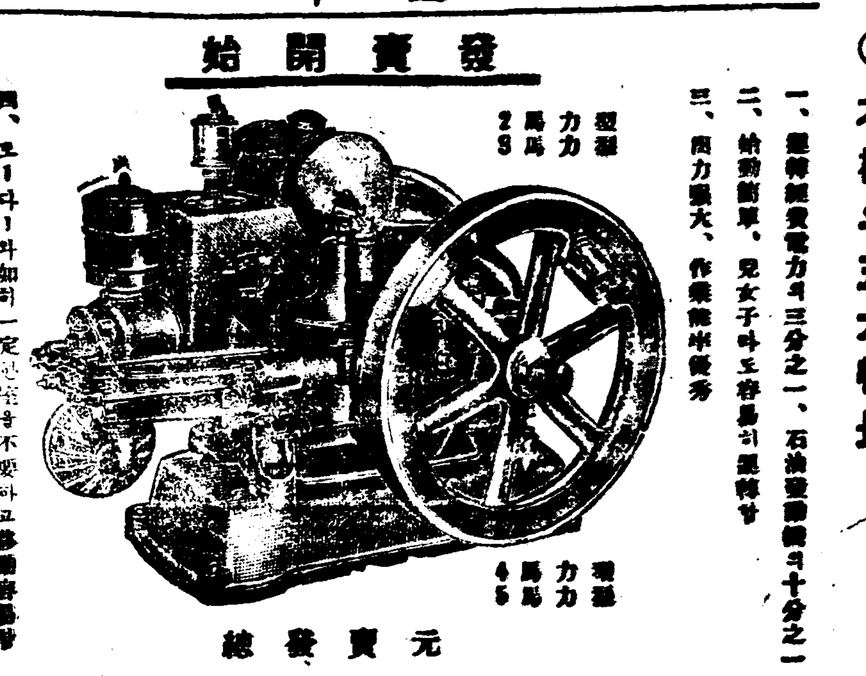
文具卸商
株式會社 彰文堂
京城府鍾路二丁目八五 振替京城六三九三番



ノアピ 山葉
家庭用(竪型) 500圓以上
學校用(平台)1·000圓以上
(全鮮各特約店에有합)
カタログ贈呈
日本樂器會社出張所
(京城本町一 電本三四八五)

旗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宣傳旗 幟幕

世界唯一●完璧을誇함
農業用小型야마—디—젤
發賣開始
◎本機의五大特長
一、燃料消費量이三分之一、石油發動機의十分之一
二、始動簡單、兒女子라도容易히運轉함
三、馬力强大、作業能率優秀
四、모—다—와如히一定한場所를不要하고移動容易함
五、用途에差가업이모—든用途에歡迎
規格 馬力 2馬 3馬 / 4馬 5馬
◎特約店募集
詳細型錄進呈
元賣發總
山岡內燃機株式會社京城出張所——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驛前



人氣沸騰한
醴泉痰藥
醴에 泉천 痰담 藥약
治風、治痰에 편작인
定價 大二圓 中一圓 小六十錢
●여러가지 공기가 여서고 手術로 낫지 못하든 走馬痰
●百藥이 無効하든 고다리가 절는 鶴膝風
●四肢가 오그라지고 풀에 마비되는 擺節風
●半身不隨된 者로 中風
●內腫이 어으로 저리는 痰腫
●第五十一歲前後의 男女의 苦痛하는 腰痛
●全身의 上下에 뻗치는 神經痛
●百發百中인 醴泉痰藥만
發賣元 日新堂藥房京城支店
京城府內壽町六番地 振替京城七二二七番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

PARAGON
파라곤
音道의 革命으로
至今까지 포—타불로는 들을수업섯든 原音의 妙徵이 鮮明하게 난다
他品의追從을不許
世界的發明
特許十一件
京城古市町 青木商會 樂器部
各레코—드店과 樂器店에잇다
P.NO.35
¥38.00
(十數種型錄進呈)

마라손王
孫選手
레코—드를通하야 優勝의感激을말함
近日發賣
올림픽待望의 마라손에 優勝하엿습니다 우리는 목업시 울수업는 歷史的 感激의 場面을 이 레코—드一枚에 依하야 永久히 記念할것입니다
不朽의名盤
優勝의感激(A) 孫基禎吹込
마라손制覇歌(B) 蔡奎燁吹込
一枚一圓五十錢
Columbia
콜럼비아레코—드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淋疾이거든、거든、藥物療法에 失敗햇거든、最新科學療法으로……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古市町
發賣元 平山幸運堂 京城昌成町七三 電話光化門二一九一番 振替京城二三八六六番
(實費料送金先要二十錢九圓具一代布頒)

第三回
應世農道學院
生徒募集
▲出願期日 十月二十八日까지
▲入學資格 普通學校(六年)卒業者又는同等以上程度者
▲試驗日 十一月一、二兩日
▲修業期間 自十一月一日 至翌年十月末日
全南光山郡極樂面雙村里 (電話六一〇番)
願書、推薦書、其他詳細는要二錢切手

榮養에
わかもと 와가모도
諸器官의 機能을 旺盛케하고 ... 本邦唯一의 ...
三百錠一圓六十錢

經濟解說

今後의世界經濟
어떠한길을밟을가

李○○

×

九月廿六日 佛蘭西는 法貨切下와 同時에 金本位停止를 斷行하야 이에 金뿌럭은 崩壞되고 世界經濟의 攪亂要素의 一이 除去되어다하야 世界經濟의 好轉의 契機가될것으로보는편이만코 世界經濟會議로 一層 그期待가잇는 모양인바 果然 今後의 世界經濟는 이러한 期待에 相副되도록 好轉安定의 域에 達케될것인가?

×

世界經濟의 今後를 말하기前에 먼저 法貨切下後의 佛蘭西經濟事情이 어떠할가를 檢討하는것이 順序일것갓다。

佛蘭西는 法貨切下를斷行에잇서서 英米兩國의 諒解를얻하야 英、米、佛三國의 爲替協定으로 미리 諒解를 得하얏고 金自由交換을 하게하기爲한 英、米、佛三國의 爲替安定策을 圖謀한 一方法貨切下를 斷行한바 이러한 工作과 對策에 依하야 今後의 佛蘭西가 法貨切下의利益을 얼마나 享受케될것이며 英國과의 關係는어떠케될것인가?

×

먼저 英、米、佛三國의 爲替協定은 率直히 말하면 法貨切下에 依한爲替變動으로부터 이러날 危險을 防止키爲한 一時的 彌縫策이라할수잇는것으로 三國間의平價切下率이 相異하면 이協定은 언제어떠케破綻될지모르는것으로서 이協定이란것은 決코 爲替比率을 確定한內容이아니다。

더구나 法貨切下는 그率이 確定的이아님으로 그것이確定되기까지는 爲替市勢도 暗中摸索的으로 高下할수밧게업는터로서 法貨切下率과 그時期가確定되기는 그리速하지못할것갓고 妥當한切下率도算定키가 困難할모양으로 佛蘭西政府로서는 될수잇는대로 法貨動搖를防止하고 外交交涉結果에應한 切下率을 確定코저하는모양이나 爲替市場의安定도 그리容易할것갓지안타。

×

그다음 佛蘭西切下는 平價切下와同時에行하얏는데 그內容은 一、瑞西 유질란드 和蘭等과이及아드레진으로부터의 輸入商品에 賦課한爲替補償稅를 十月十日부터廢止

二、原産品의輸入稅를 一割七分輕半乃至原産品의輸入稅를 一割五分引下하고 또한協定稅率을 適用은稅入商品에 對한 一般關稅도二割引下하야 十月十日 實施

三、日本及中國에 對하야서는 一割의 最高爲替補償稅를 適用하야 十月十日實施

이가튼 關稅引下는 通貨協定에 對한 率制策으로서 主要目的은 生活費昂騰을 막기爲한 社會政策이라고 볼수잇는바 軍需인푸레傾向이 濃化한 佛蘭西에 잇서서 法貨는 正統的經濟方式下에서 軍需인푸레를 强行한 不健全한財政이잇스나 金本位離脫로 事實이업서지고 本格的으로 軍需인푸레를 振作하는 軍需과 社會政策上 不可避이키갓다。

即·佛蘭西經濟의 生産 各部門에亘한 統制의 强化가 如何한 形態로 實現될 것이냐? 年五十億乃至의 入超를 防止하기爲하야는 生産力을 增大하야겟는바 生産力을 擴充하기爲하야는 어떠한程度의 物價 爲替騰貴는 不可避이며 大衆生活費困 金利衣食을 作케된다。그러나 이는 民衆政府內閣으로서는 그리 어려운것으로 社會政策을 主로한다면 生産力增大와 軍需가되겟스니 此亦難避의 事情下에잇는것이다。

그럼으로 佛蘭西 經濟는 軍需的經濟時代에 直面하야 國際收支의 惡化를 防止하기爲하야서는 그 輸出을 增加하지 아니하면 아니될터이나 物價騰貴와 生産費의 增加는 輸出을 困難케하고 그 結果는 다시 ... [illegible]

×

要컨대 이러한지라 佛蘭西는 法貨切下로 一時的 安定을 圖謀키는 하엿스나 今後의 世界經濟가 注目하는터로 安定을 保持키 어려운 形勢로 그 將來는 지금에 잇서서 豫測하기 어려운모양이다。

産業經濟調查會
答申案決定閉會
二十四日總會에서採擇可決
五日間審議結果發表

朝鮮産業經濟調查會의 最終日인 二十五日은 午前九時四十分 前日에 繼續하야 第四分科會(農業敎育其他一般事項)를 開하고 ▲鑛山敎育 ▲國語敎育 ▲酒類試驗所等에 對하야 意見陳述이잇고 同十時半終了、繼續하야 總會를開한後 各分科會主査로부터 連三日間 愼重한 審議를遂한結果 答申試案에 對하야 各各 增補를 加한後 可決하엿다고 報告가잇섯다 이에 大野會長으로부터 答申의 第一에서부터 第八에至하기까지 採決하바 모다 分科會報告대로 滿場一致可決을 보앗다 다시 會長은 右主旨에基하야 答申案을 總督에 報告할것을 宣言하고 會議는 곳내고 總督으로부터 人事가 잇슨다음 零時四十分 閉會하엿는데 五日間의 收穫으로 當局에서 發表된 同調查會의 答申案은 다음과갓다

農林水産에關한件

農林業

一、農業用土地의配分及利用의改善을圖할것

朝鮮의 農林水産業은 日滿關係에잇서서의 朝鮮의 經濟的地位及 最近躍進의 緖에就한 朝鮮內他産業과의 相互依存關係를 考慮하고 또朝鮮內 最大多數住民의 生活에 가장 緊密한 關係가잇슴에 鑑하야 또는 有事의 際의 需要의 充足을 圖하는目的으로써 日本內地及 滿洲와 協調連絡을 保하야 斯業의 改善伸展을 期하는 趣旨下에 다시 大要左의 方策을 取할必要가잇다고認한다

朝鮮에잇서서의 農業者의 分布狀況을보면 人口가 相當히稠密하야 耕地와 狹隘을 告하는 地方이잇는 一面人口가 比較的稀薄하야 農法이 亦是 粗放한 地方이 잇슬뿐아니라 開墾可能地及改善을 要하는耕地도 不少한 狀況임으로 農業者移民의助成田作適地의 開墾不良畓의 改善高地帶의 開發等을 圖하야農業用土地의 配分及利用을 合理的으로하야서 農業의 進步改善農民生活의 安定을 期할必要가 잇다

▲施設計畫

가、農業移民의 助成을 圖할것

耕地가 狹少하고 人口가 稠密한 地方의 農業者를 그것이 安定할地方에 移住를 奬勵하기爲하야 未開墾地及 農法이 粗放한 既墾耕地를 開墾하는等 農地의 提供方法을 講하는外 移民奬勵에關한 施設과 移住地의 移民保護、指導에關하야 必要한 施設을 하는同時에 移民事業에 對한 助成方法을 講할必要가잇다

나、林野利用區分調查를 行할것

民有林野中에는 森林으로서存置할 必要가업는것이 相當한面積을 占한다고 思料되는데 現在 兩者의 區分이 明瞭치안흠으로 林政上과 國土利用上 多의 支障이잇다 따라 森林으로서存置할 必要가업는土地는 이를開放하야 農牧의 用에 供할수잇는 途를열어 各種産業의 綜合的發達에 資할 必要가잇다

다、田作適地의 開墾을 助成할것

棉花增産計畫、植桑奬勵計畫其他의 田作增産計畫에 順應하야 田地의 擴張을 要할뿐만아니라 人口增加에 伴하야 不足한 耕地를 補充할必要가잇슴으로 全朝鮮에亘하야 田作適地의 調查를 하고 이에 基하야 田地의 開墾助成을 할必要가잇다

라、畓의 改善事業을 助成할것

朝鮮의 畓總面積의 約六割은 水利不安全畓으로 恒常 旱魃에 依한 慘害를 蒙하고잇는 實情임으로 此等 水利不安全畓에對하야 根本的恒久策을 樹立하기爲하야 그調查를 하고 이에基하야 水利不安全畓의 改善事業을 助成하는同時에 改善할希望이업는 畓의 地目을 變更하고 또 用水源이 完備한 地區에對하야도 畓의 經濟的利用을 促進하기爲하야 地區內水利施設의 改良事業을 助成할 必要가잇다

마、高地帶의 開發을圖할것

從來高地帶에 散在하야 國土保安上 支障이 不少한 火田을 整理하고 防風林의 造成及 地盤保護의 施設을 하는 同時에 農耕適地의 調查開墾、南朝鮮人口稠密地로부터의 移民助成、該地帶適應作物品種의 選出普及及農民에對한 營農의 適切한 指導施設等을하야써 高地帶의 開發을 圖할 必要가잇다

二、農業經營의改善을圖할것

朝鮮農業의 現狀에鑑하야 農業經營의 形態及 方法의 合理化를 圖할 必要가 緊切한바이잇슴으로 自作農의 創設維持에關한 積極的助成策을 確立하는同時에 農家副業의 振作、農用林地의利用、肥料의 配給施用、農具의改良普及에 關하야 適切한 方策을 講하고 他面 適地適作主義에 依하야 作物의 栽培를 按配하는 同時에 養蠶、産業의 經營을 適宜加味하야 營農의 多角形化를 圖하기 爲하야 此等에 關한 諸施設을 改善擴充할 必要가잇다。

▲施設計畫

가、自作農創設維持의 助成을 圖할것

農村의 中堅인 自作農減少의 趨勢를 慮하고 且 農業經營形態를 合理的으로하기 爲하야 創設維持農家에 對하야 低利資金의 融通을 圖하는 同時에 그 農家의 農業經營을 合理的으로 하도록 指導의 萬全을 期하고 他面 本事業의 主體에 對하야 國庫補助金의交付 其他 助成方法을 講하고 또 自作農의 創設에 對하여는 農地의 買收를 容易하도록할 必要가잇다。

나、農家副業의 振作을 圖할것

農家의 餘剩勞力을 利用하야 現金收入을 增加하야 農家經濟를 向上시킬 目的下에 朝鮮에서 가장 主要한 副業인 養蠶의 內容을 充實하기 爲하야 그奬勵에 一層 考慮하는 同時에 繩叺의製作 其他 副業을 選定하야 生産의 指導、奬勵를 하고 兼하야 生産統制를 圖하고 又 生産品의 處理方法에 對하여서는 此를 合理的으로하도록 施設을할 必要가잇다。

다、農用林地의 設營을 圖할것

燃料、肥料及 飼料等의 農用林産物의 供給을 豐富하기 爲하야 地方에 林野를 所有한 農家及 資力잇는 農家에 對하야 林地의 設營을 하도록할 必要가 잇다。

라、肥料의 配給과 施用의 改善을 圖할것。

普通農法의 進步에 伴하야 肥料의 配給과 施用如何는 곳 農業經營에 重大한 影響이 잇스므로 普遍的으로 經濟的인 肥料의 增産、改善을 圖하는同時에 速히 全朝鮮에 잇서서의 耕地의 土性調查를 完了하야 施肥의 合理化를 促하고 併하야 金肥의 需給의 圓滑과 價格의 公正을 圖하기 爲하야 朝鮮의 實情에 適應할 肥料의 統制를 行할 必要가잇다

마、農具의 普及及改善을圖할것

朝鮮의 農家는 아직 農業에 必須한 農具도 常備치 안흔者 不少함으로 速히 그普及을 圖하는同時에 朝鮮의 民度와 農法에 適當한 農具의 調查를 行하야 漸次優良農具의 普及을 圖할必要가잇다

바、食糧田作物의 改良增殖을 促進할것

朝鮮의 氣候風土에 適當하고 또 增産의 餘地가 만흔 粟、麥類 豆類等의 食糧田作物에 對하야 從來의 增産施設을 一層 强化擴充하는 同時에 補食作物로가장 適當한 甘藷와 馬鈴薯에 對하야 新品種의 選出普及、指導員의 設置等 積極的으로 增産을 圖하야서 食糧의 充實을 期할必要가잇다

사、畜産에關한 諸施設을 改善擴充할것

有畜農業을 普及徹底식히며 農業經營의 合理化와 農家經濟의 向上을 期하기爲하야

1 有畜農業의 經營樣式及 實施計畫를 決定하고 適當한指導方策을 樹立하고

2 朝鮮牛의 改良增産을 圖하는同時에 其他에 家畜에對하야서도 地方의 實情에 適應한奬勵方針을 確立하고

3 畜牛共濟制度의 强化擴充과 助成을 圖하고 將來에 잇서서는 다시이를 一般家畜의保險制에까지 擴及케하고

4 總督府及 地方의 種畜生産配付事業을 擴充하야 家畜家禽의 供給에資하고

5 畜力、厩肥及 家畜生産物의 利用厚生을 圖하며

敍上의 施設의 實施에 伴하야 總督府의 畜産行政機構의 刷新充實을 圖할必要가잇다

(以下는産業面에繼續)

米穀移動調查
搬出十四萬石、輸出萬四千石
移出四十三萬五千石

九月分米穀移動高調

本年부터 米穀은 大調查의하나로 새로作定된 移動調查要綱에基한 九月一日부터 九月末日까지의一個月間의 米穀移動狀況을調查하면 道外搬出高一四一、六五三石、移出高四三五、二三一石、輸出高一四、〇五五石、合計五九一、九五九石으로 그內譯은 左와如하다

一、米穀道外搬出數量

道別	搬出數量
京畿道	二〇、五八五石
忠淸北道	一三、七九八
忠淸南道	四一、七八〇
全羅北道	一、五九三
全羅南道	一六、四一〇
慶尙北道	二八、三五六
慶尙南道	三、九五二
黃海道	一九、六四四
平安南道	一、一七二
平安北道	一、一三七
江原道	八、一一五
咸鏡南道	三、八八〇
咸鏡北道	一、一三二
合計	一四一、六五三

二、米穀移出數量 四三五、二三一石

三、米穀輸出數量 一四、〇五五石

新米資金
金利一錢五六厘

新米의 出廻期에 入하야이미 中部朝鮮 北朝鮮地方은 出廻를보는中인데 今年은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如何乃至이에依한 米穀應急低利資金의 受入如何가 總督府에서도 未決定임으로 金融業者는 貯藏米에 對한 金融方針도 決定되지안허 우선自己資金으로써 貸出하고잇는데 從하야 金利도 自己資金과가리 一錢五六厘로 融通하고잇는 模樣으로昨年은 一錢三厘로 低資가 融通되엇스나 今年은 十一月에 入치안호면 低資轉通이 決定되지 안흠으로 그때까지는 低資의金利를 適用치안코 現在의 一錢五六厘로 貸出할 方針이라한다

平南鐵道創總

平南鐵道會社創立總會는 二十三日午後三時四十分부터 京城商議에서 開催하고 田川創立委員長으로부터 創立經過報告가잇고 總會에入하야 田川氏를 座長에推薦하고 左記各項을 附議하얏다

一、定款承認件

一、重役選任

一、重役報酬決定件

第一項은 原案대로 承認 役...

滿銀과朝銀
爲替協定締結?

朝銀의 滿洲後退設는 全滿의金融은 滿洲中央銀行에 依하야統制되고 正金銀行은 外國爲替取扱銀行으로서 남으며 東拓은不動産金融機關으로서 남게될터인데 朝銀은 普通銀行業務의 閉鎖에 對하야 對日本爲替業務를 受持하기로 되엇고 새로이 滿洲中央銀行과의 間에 爲替協定을 締結키로되엇다 이外에 中央銀行에 朝銀券을 發行準備로 하는 關係上이에附隨하는 業務는 남을것으로 全然朝銀과 滿洲는 無關係로될것은 아니다 特히 關東州內의支店을 그대로 남흠으로 今春新設된 總督府의 滿洲課等도 駁止는 아닐方針인듯하다한다

鰯油九十八萬貫
合同油脂落札

咸南北의 鰯漁는 最盛期에入하야 去二十一日 今年에入한後 最大의入札、即 油九十八萬貫의 入札이 잇섯는데 그結果 合同油脂에 落札되고 落札價는 三圓六十八錢으로 昨年의 二圓八十錢에比하야 一圓六十八錢의高價이라한다

米日爲替少低落

【經濟二十三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比較하야 二十八弗五十七仙으로 二十仙低이오 買二十八弗五十仙으로 三仙低이다

取引停止
(十月二十一日)被呼

業京城府蓬莢町二丁目一七一番地吳南吉

商況 【廿四日】

株式
買氣勃發 暴騰

前場暴騰 昨後場不...

朝銀券激增

朝銀券發行高는 一億五千七百七十萬一千圓으로 逐日激增하는 模樣인데 右는 依然關係에依한 恩聯과 新米穀資金 其他資金需要期에 入한것으로 依하야 今後도 漸次膨脹一途이리라한다

(前略)▲取締役=齋藤久太郎 田川常治郞南宮氏各社長이되어 如左히 選任하얏다

▲取締役=齋藤久太郎 井上寬太郞 吉永武揚 朴興植 靑木鐸五郞 李鍾萬 秦山秀次郞 田川常治郞

▲監查役=鈴木孝太郞 菅井靖二 田中三郞 立川六郞

▲相談役=金季洙 衣笠又四郞 金季洙 靑木鐸司

役員報酬는 年一萬圓으로 決定하고 取締役互選結果 如左히 決定하엿다

▲社長 齋藤久太郎 ▲專務 吉永武揚 ▲技師長 和田豊 ▲支配人 百瀨波雄

財界前途明朗

財界前途觀은 一分減配說等에 警戒되고 日中商議의 政局前途에 對한 不安등 財界의 不透明等으로 漸次回復되어서 實勢 다시 擡頭하야 百三十四圓臺로부터 百三十圓臺로 急騰하야 滿期前市場의人氣를 一新케하얏는데 는 滿洲反動이라고도 할것으로 殷賑된 材料들 不圖하야고도 할것이 多少 何等 三二、二六事件으로 어떠케 될지 모르는 界의 今後가 日本財界의 不安의 絶頂에서라도 百二十五圓五十錢에 東新이 今日에 그 十四五圓高인 百三十四圓五 곳에 잇다는것은 前途는 그야말로 明朗하다는 것이다 ...

今日財界 (日曜附)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三六·九八
大阪期米 先限 三六·四〇
○三等米 一石 三〇·〇〇
京城正米 (仁川) 一等 二三·〇〇
白米 一斤
正租 三一·〇〇 不變

◆市中金融

一分貸 一分五厘 一分五厘

◆株 (單位圓)

朝新 一六二·七〇
東新 一三二·〇〇
日·産 八〇·五〇

◆系 (先限單位圓)

大阪絹糸 一八三·〇〇
大阪棉花 三九·五〇
大阪人絹 三〇·〇〇
大阪砂糖 二九·二〇
ゴールデンQ 不變

大株初立會時間

【大阪電話商通】大株取引所에서는 今回業務規定第三條를 改正하야 年頭의 初立會는 長短期及實物의 各取引共히 午前八時에 開始키로하엿다

六感

株……低迷裡에 彷徨하든 東新이 一躍 百二十八圓臺로 奔騰! ▲아모리 探算中心의 雜株物을 買時代라고하나、東新만이 無力할까닭이 都無▲一時的低落은 玉整理로 因한 賣人氣의 高價인 財界의 實勢와 前途가 許諾지안는것 어찌하나▲押目買니 反動이니하는 述語를 쓸까닭도 업다 大勢的으로 前途明朗而已!

米……過買反動에는 暴落이 스나 近日賣派의 活躍도 傳說키難한바잇다▲그러나 이는 結局當限中心의 싸움이므로 先限은 伸悩保合裡에 推移되어 興味圈外▲卒當의 煎一退와 新米出廻遲延으로 當限은 又復暴騰하리라說도 不無▲그러나 微妙한 今後의 決議가 判明해질 限에는 中先限의 納會後의 決戰도 불 만한者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買氣停頓에 加하야 謹慎商議와 不明朗이 財界不安이 增大되어 米貨六分半은 下落하야 一圓六十錢低에 止하고 三分利는 五錢至十錢低落하야 保合에 佛貨는 이 軟調하야 下落하얏스나 內國貨도 十五錢下落하야

▲甲五分利 一〇〇圓 ▲一回四分利 一〇〇圓 一〇〇圓 一〇〇圓 ▲佛貨一九五九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圓 ▲第三五分 一〇〇圓 ▲一回四分 一〇一、二〇 ▲佛貨 一九五八三 ▲米貨六分半 一〇一六 ▲滿洲公債 一〇一〇

實物前場取引

▲鐘紡新 二二六·〇〇 ▲日産 七五·三〇 ▲日鑛 二二六·〇〇 ▲東電 六五·七〇 ▲人造肥料 七三·〇〇 ▲日本石油 七三·〇〇 ▲帝國人絹 一六五·三〇 ▲新東新 一九九·〇〇 ▲日本火藥 ▲朝日新聞 ▲朝鮮新(取引高三五〇枚)

期米
當限續騰
好勢

前場上進

昨後場阪地二十八圓九十錢止와 共히 二十六圓七十四錢에 寄止한 當地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九十錢에 三丁高를 報하고 二十六圓七十九錢이 五丁高로 寄한後 阪地二十九圓○六錢으로 上進하엿다가 七節二十八圓九十錢을 低價로 二十九圓○七錢에 止引하엿음으로 上進하야 二十六圓九十四錢에 止引하엿다

後場膠着

後場은 二十六圓八十九錢으로 始動한後 三節八十八錢으로 結局八十九錢에 止引하엿다

過賣의反動?

全産聯의 賣拔說로 一大瓦落을 招한 市勢도 連三日再次高價를 回復하기始作하야 阪地는當限을中心으로 上進되어 今朝에는 阪地當限은 三十圓七十錢臺로 中限은 二十九圓六十錢으로 騰貴하고 先限은 比較的伸悩이나 二十九圓의 關門을 突破하고 二十九圓〇七錢의 高價를 보이게되엇는데 이는要컨대 어떤...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第三次 揚下延期와 新米의 中間端境으로 市中은正米不足을呈하고잇는데다가 今朝는 全國的冷氣로 早稲念慮와東北地方의 降霜에買人氣가强하야 小口側에買가現出하야昂進하엿다 今朝、北川、田中龍、片山店이 連據買한것은 三木의 買續이로보이며 片山店의 賣物에는 下關의 林兼이잇다고한다

今朝主要賣買는如左하다

賣方 中東乘替 地場

買方 神戶、地場、地場利喚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買方	賣方	買方	賣方	買方
	㉗一二〇〇	㉕一〇〇〇	㉚九五〇〇	지一〇〇〇	㉗一八〇〇	㉗一〇〇〇
	㉕三〇〇	㉕一〇〇〇	㉘一五〇〇	지五〇〇〇	東三〇〇〇	東一〇〇〇
	㉘五〇〇	㉘一〇〇〇	㉗一〇〇〇	㉕二〇〇〇	㉕一三〇〇〇	지二三〇〇〇
	㉗一六〇〇	지三〇〇〇	㉙五〇〇	㉚一〇〇〇	㉙三〇〇〇	㉘一〇〇〇

商談이不少하다

當限戰白熱化
新米出廻遲遲로

阪地當限이 兩三日來 六七十丁을奔騰한것은 要컨대 賣方의 輕退에 依한것이라는데 지금表面의 取組高는 五萬二千石(二十一日現在)으로 相當히 적어젓스나 取組關係는 저급賣十六店에 對하야 買十店으로依然拮抗되다가 當地는低價에는 實渡하고 잇스므로 納會까지에 渡米 調達을 할수가 잇슬는지 疑問視되는데 當地當限도 金太를 中心으로한 有力地場이 買占하고잇서서 受米를覺悟하고잇다고傳聞되니라 今年新米出廻는 遲遲하야 早稲地方은 모다不作으로出廻餘地가업고 其他地方은 지금收穫中에잇서서 當限受渡에 供할수잇슬는지 매우疑問이므로 京城某有力賣方이 六千餘石의賣物을 轉退하는等 交替轉退로 當限은一層滅味를보이고잇는데라이라는바 이當限戰의月末迫頭와함께白熱化하게되엇는데 結局渡米調達난으로 又復一段奔騰할것이아닌가하는 商談이不少하다

新規材料가잇다는것보담도 六百二十八錢的市勢를 顯現하는 一二百丁의反騰의反動으로 보이는것이 事實의騰貴的인것이라고도 할것이므로 本格的騰勢는 아니드라도 低價에서 百丁以上의 反撥이라는 는 반듯이 한번 보일것이라는 商議이 不無하다 또한 軟派로서도 價位에잇서서 實即的警戒地가 잇는것을 百丁反撥도기다리지안코 實需的人氣로 反騰하여 가 伸悩한 氣勢로 當分間相當한 反騰할 듯는데이나 軟派도 實需的人氣로 反騰 한 相場을 기다릴수밧게 업스리라 고한다 如何!

各地正米

東城續伸 天候良好이나 賣物이적은데다가 朝米高로 二十錢高일 形勢이엇다 ㊂三等一八、三〇 四等二八、〇〇 一等白米三一、五〇

仁川底堅 期米好調로 氣配二十錢高인데 買物이업다 ㊂三等二八、四〇 四等二八、一〇 一等白米一三一〇

釜山不變 期米當限高를 반겨今春出廻의 月末當用買와 精米側의 買進에 比較的買氣는 順調로 되는모양이나 市況은 伸悩이엇다 ㊁三等二七、九〇 四等二七、六〇 一等白米二三八

大邱少强 期米少康으로 十錢高氣配이엇스나 高價는 賣物不參하야 人氣는 依然沈滯味를 未脫하엿다 ㊁三等二七、二〇四等二六、九〇

群山堅調 群山精業期近의 賣價膠着을보고 賣價하야 市況은 强堅하야 十錢高唱이나 實質는 意外로 적엇다 ㊂三等二七、八〇 四等二七、五〇 新米二八、三〇 一等白米二二、二〇

木浦强調 定期當限昂騰에 刺戟되어 氣配二十錢高化하엿스나 環境不透明으로 賣買는 별로업다 ㊂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三〇 一等白米二三、〇〇

株式 【廿四日】

◆朝取短期

株名	前場寄	前場引	高値	後場引
朝取	八七·〇〇	八七·〇〇	八七·五〇	八七·五〇
朝新	一六九·七〇	一六九·五〇	一六九·七〇	一六九·七〇
鐘新	一六九·七〇	一六九·〇〇	一六九·〇〇	一六九·〇〇
東新	一三一·〇〇	一三一·五〇	一三二·〇〇	一三一·五〇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八〇·五〇	八〇·五〇	八〇·五〇	八〇·五〇
日鑛	七五·五〇	七五·五〇	七五·五〇	七五·五〇
日魯	七六·五〇	七六·五〇	七六·五〇	七六·五〇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新	二三·〇〇	二三·〇〇	二三·〇〇	二三·〇〇
朝石	二三·〇〇			
帝人	[illegible]			
拓新	[illegible]			
北紙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株名	算定	日步	代引	取組
朝取	八八·〇〇	三	四三〇	二三〇〇
朝新	一六六·二〇	逆五	二七·〇〇	二三〇〇
鐘新	一六八·〇〇	三	不〇	一九〇〇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日魯	[illegible]	三	不〇	
日鑛	[illegible]			
同新	[illegible]			
安取	[illegible]			
商船新	[illegible]	逆六	不〇	
拓新	二二·五〇			
北紙	[illegible]			

◆大阪短期

株名	前場寄	前場引	後場寄	後場引
大新	一七〇·五〇	一七〇·〇〇	一七〇·五〇	一七〇·〇〇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取組 / ◆大阪短期氣配 / ◆大阪長期 / ◆東京現株 /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期 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康益商店
光皿
株 金益證券 株式會社

仁川
福
期米
吉村取引店

金融 【廿四日】

◆海外經濟◆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東京市中金融◆ ◆京城手形交換高◆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廿四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廿四日】

◆京城絲系布市勢◆ ◆京城綢布◆ ◆麵油沖價◆ ◆鰯搾粕沖價◆ ◆日米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期米 【廿四日】

◆仁取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廿四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横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紐育棉花◆

[illegible]